

네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와 겸직 목회의 관계에 대한 실천신학적 고찰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조대웅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3년 5월

Copyright © 2023 Daewoung Jo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SSLIE NEWBIGIN'S MISSIONAL CHURCH AND BI-VOCATIONAL MINISTRY : A PRACTICAL-THEOLOGICAL ANALYSIS

Daewoung Jo

Trinity United Methodist Church, New Jersey

The central theme of this project is the essential mission of the church and the calling of pastors, specifically in the practical theology aspect of the rapidly changing pastoral environment. The research highlights the economic difficulties that pastors face and emphasizes that the decision to live a bi-vocational life is not solely due to economic factors but also rooted in their calling. The historical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of bi-vocational ministry is also examined as a natural aspect of the church's history.

Unfortunately, the mainstream trend in the Korean church has been focused on internal matters. The church's systems and programs have been geared towards how to keep more believers in the church for longer periods of time. As a result, the church has become more institutionalized, quantified, and conservative, leading to serious side effects such as individualism, pastor-centric leadership structures, and polarization. Ultimately, the church has failed to embrace societal changes and has become alienated and criticized, resulting in a decline in the number of churchgoers. This reality has

become a decisive factor that exacerbates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pastors.

The research delves into statistical data to reveal the reality faced by pastors, and demonstrates through the examples of well-known figures in the Bible and history that bi-vocational ministry is a natural calling. The formation of Leslie Newbigin's gospel-centered and ecumenical missiology is also examined to understand his missional church, and his insights provide valuable perspectives on today's context.

Finally, a practical theological reflection is shar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ssional church and bi-vocational ministry, leading to a concluding remark. Overall, this dissertation presents a compelling case for the importance of bi-vocational ministry in responding to the changing times and embracing the essential mission of the church. It emphasizes the need for churches and pastors to move beyond institutionalization and quantification towards a more missional focus, incorporating all aspects of life into the mission of the church.

목 차

그림 목차	ix
감사의 글	x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2.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이해	11
2.1 급변하는 목회환경	11
2.2 목회자들의 현실	18
3. 이중직 목회자	27
3.1 이중직 목회자의 정의	27
3.2 구약에 나타난 목회자 이중직	28
3.3 바울의 자비량 사역	31
3.4 모라비안 선교회의 자비량 선교사역	35
4. 선교적 교회: 뉴비긴을 중심으로	37
4.1 레슬리 뉴비긴의 생애	37
4.2 뉴비긴의 선교신학 형성	41
4.2.1 복음주의적, 실천주의적 신학	41
4.2.2 에큐메니칼 복음주의	43
4.2.3 선교적 교회	45
4.3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가 이 시대에 주는 통찰.....	50
4.4 선교적 교회와 겸직목회의 관계에 대한 실천신학적 고찰.....	57
4.2.1 선교적 마인드와 겸직목회의 관계	57

4.2.2 만인 제사장	61
4.2.3 직업 소명설	65
4.2.4 소명과 직업	68
5. 나가는 말	73
참고문헌	77

그림 목차

<그림 1> 2017 목회자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17
<그림 2> 목회자가 이중직 갖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	18
<그림 3> 이중직 목회자 비율	19
<그림 4> 이중직 수행 이유 (상위 5개).....	16
<그림 5> 이중직 목회자의 월 수입.....	20
<그림 6> 이중직 목회자의 월 교회 사례비 받는지 여부.....	21
<그림 7> 목회를 계속할 의향	22
<그림 8> 이중직 수행 이유 (상위 5개).....	23
<그림 9> 이중직에 대한 만족도(이중직 목회자).....	23
<그림 10> 이중직 수행 자세.....	24
<그림 11> 조사개요.....	26
<그림 12> Church Growth, Church Health, and Missional Church.....	59

감사의 글

먼저 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감사의 말을 쓰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사실 나는 이 논문을 작성하는 동안 많은 환경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논문 완성을 연기해야 하나 생각도 많이 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조로 감사의 글 까지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신 조병호 교수님, 김영래 교수님,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의 수업을 통해서 나의 생각들이 더 확장 될 수 있었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병호 교수님의 “통 성경” 강의는 성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김영래 교수님의 자세한 가르침과 응원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D.Min과정을 시작할 때 부터 늘 응원해 주며 기도해 주신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길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뉴저지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현재 사역하고 있는 Trinity UMC, Highland Park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해 주신 친구들, 동료들, 선배, 후배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아이 키우느라 바쁘고 할 일 많은데 논문 쓴다고 잘 돕지도 못하는 남편을 인내하며 기다려준 아내, 임지현. 논문 빨리 끝내고 놀자고 조르는 사랑하는 하루와 하니. 사실 논문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맙고 수고

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중직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목사로 전도사로, 남편과 아내로, 아빠와 엄마로, 사원이나 사장님, 혹은 김씨나, 이씨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이중직 목사님들. 참 수고 많으십니다, 훌륭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2023. 5

조대웅

국문초록

네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와 겸직 목회의 관계에 대한 실천신학적 고찰

조대웅

트리니티 교회, 뉴저지

이 연구는 급격히 변해가는 목회환경 속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 실천신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논문이다. 특히 목회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드러내고 그들이 이중직을 하면서 목회사역을 이어가는 이유가 경제적인 원인 뿐 아니라 결국 소명에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또한 역사적, 신학적으로 이중직 사역은 교회의 역사에서 계속 있었던 자연스러운 사역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타깝게도 한국 주류 교계의 흐름은 안으로의 강조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많이, 더 오래 교회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에 교회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맞춰져 있었다. 그 결과 교회는 대형화, 물량화, 보수화 되어갔고 개교회 중심주의, 목회자 중심의 리더십 구조, 양극화 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얻게 되었다. 결국 교회는 변화는 사회를 포용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외면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교세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흐름은 목회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은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을 준다. 선교적 교회론은 하나님께 부름 받고, 또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직과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일상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선교의 자리임을 알려준다. 이것은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다를 것이 없다. 목회의 현장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터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그들이 자녀로, 부모로, 배우자로, 또한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인 것이다. 변화되고 있는 목회 현실 속에서 이러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이며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이라고 믿는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목회자들이 처한 현실을 각종 통계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성경과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진 인물들의 사례를 통하여 이중직 목회가 갑자기 생긴 사역이 아니라 늘 있어 왔음을 밝히고자 한다.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돌아오고 그의 복음주의적이고 에큐메니칼한 선교신학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의 선교신학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통찰을 주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선교적 교회와 겸직목회의 관계에 대한 실천신학적 고찰을 나누고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23년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급변하는 격동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 19는 건드려서는 안될 역린(逆鱗)을 뽑은 것처럼 전세계인의 보이는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었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식의 영역들 또한 송두리채 바꾸어 놓았다. 사회의 모든 분야-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보건, 교육, 미디어 등등-에서 새로운 춘추전국시대라도 열린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왕좌에 앉기 위해, 또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 지는 첨단기술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였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무인 운송 수단, 5G, 로봇공학,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전 세계가 초네트워크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4차 산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창조적인 융합”이다. 융합이란 다양한 학문, 기술 및 산업 영역 간 경계를 넘어 서로 결합하고 통합되고, 응용됨을 통해 전에 없던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단일 학문으로 해결되는 문제보다는 여러 분야의 융합을 통한 해결책이 더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전에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잡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새로운 기술은 무에서의 유로의 창조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기존 연구가 융합된 결과이다.

대표적인 기술이 최근 OpenAI에서 개발한 ChatGPT이다. 이는 고도화된 머신 러닝 기술을 통해 주어진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사람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생성형 AI 기술이다. ChatGPT가 이렇게 똑똑한 이유는 개발회사인 OpenAI가 약 1억 5,000만개의 단어를 기반으로 수없이 많은 ‘질문과 답’을 학습시켰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나와 있는 각종 책과 자료, 위키피디아 등 45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양의 문서를 익히게 한 다음 전담인력을 고용해 인간과 대화(chat)하도록 훈련시켰다. 이를 통해 ChatGPT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만 3,000개의 텍스트를 익히면서 인간의 언어패턴과 자연스러운 대화방식을 배웠다.¹ ChatGPT의 여파는 실로 엄청나다 2023년 1월 통계에 의하면 이미 150개국 이상에서 매일 1300만명 이상이 활발히 이용중이며 한달 활성 사용자 수(MAU)는 1억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² ChatGPT의 구동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면 이는 융합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AI가 수집한 셀 수 없는 자료들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맞도록 적절히 융합하여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융합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수 많은 사용자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 창조적인 융합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융합이 또 다른 융합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1 정숙희, “챗GPT, AI가 두려운 이유,” 한국일보, last modified March 1, 2023, accessed Jan 10, 2023, <http://sf.koreatimes.com/article/20230228/1455207>.

2 권진영, “챗GPT MAU 1억 달성…인스타그램보다 15배 빠른 성장,” last modified March 2, 2023, accessed Jan 10, 2023,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203/117724098/1>.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와 신학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특히 연합과 포용, 창조적인 융합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너무나 보수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러한 시대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도전과 메시지를 주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속에서 필자는 결국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예수님 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말씀과 그분이 지향했던 삶은 세상의 그것과 전혀 달랐다. 그러다 그 다름의 이유로 예수는 세상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는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갔고, 세상을 품었으며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 이 시대가 나아가는 방향과 전통적인 교회가 추구했던 방향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그들이 교회에 맞추기를 바라야 할 것인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포기하고 외면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맞춰 변화되어야 할까? 필자는 고민의 여지 없이 마지막 질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명료하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1909년 영국에서 태어난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의 신학은 이러한 고민 가운데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그는 그의 고국인 영국 뿐 아니라 미국과 인도, 그리고 제 3세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 선교사 이자, 목사이자, 신학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 속에서 선교의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를 세우며, 특히 교회연합 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선교신학자로서 뉴비긴은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일치를 위한 사역에 자신의 온 삶을

헌신하였다. 그가 그토록 이 사역을 붙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하나님 중심주의” 교회론이 있었다. 뉴비긴에 의하면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교회의 일치와 연합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화해와 연합을 교회가 증언하고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³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향해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근본적인 전제는 문화 중립적(culture-free)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적으로 제약된 형태로 구체화된 복음은 혼합주의(syncretism)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⁴ 이 가운데 수 많은 오해와 갈등, 비복음적인 상황화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과 문화의 만남은 사람들이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간섭과 역사가 그 안에 작용되어야 한다. 모든 교회는 복음에 대하여 오늘날 문화적 상황 가운데서 성경적으로 타당하며 문화적으로 상관성 있는 창조적 교회의 모델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각 개인과 가정,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차원에서만 머무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 분으로 이 세계역사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세상을 향해 선교적 소명을 깨닫고, 단절과 고립이 아닌 일치와 연합, 그리고 성과 속을 나누는 이분법이 아닌 복음과 문화의 창조적인 융합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야 한다.

3 한국선교신학회 편저,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서울: 한국선교신학회, 2020), 78.

4 Ibid., 89-90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주류역사는 선교적 교회나 에큐메니칼 연합 운동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왔던 것이 사실이다. 교회의 성장을 강조하는 교회성장론은 많은 대형교회를 양산하였고 넘치는 교인들을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관리하기 위한 교회건강론이 한국교회의 대세를 이루었다. 이러한 강조는 개인의 구원 강조에서 제자 양육으로, 목회자 주도에서 팀 리더십으로, 집회 중심에서 훈련 중심으로, 계획 중심적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잘 머물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이룬 것일 뿐 본질적인 변화는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펼칠 사명의 장을 개인적 차원에서 교회공동체로, 더 나아가 가정과 가까운 지역사회 정도로 확장하였을 뿐이다. 물론 이렇게 하는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는 자칫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선교를 익숙한 영역(comfort zone)으로 제한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성도들이 펼칠 사명의 장은 하나님의 사역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대상과 장소는 가정과 지역사회로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선교적 교회론과 에큐메니칼 운동은 한마디로 그러한 제한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부름 받은 영적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선교지라고 말한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로 사는 성도가 되라고 말한다. 모든 다름-인종, 문화, 세대, 종교, 성별 등-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으라고 말한다. 특히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의 문화와 창조적 융합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기존의 주류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그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성도들은 그러한 주장을 거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복음적이지 않다고, 혹은 정치적인 색깔을 씌워 낙인을 찍기도 한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비슷한 논의들은 주제들을 바꿔가며 이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였고 이 반복의 역사는 교단 분리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 측면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 논의에 소모되는 시간을 세상은 결코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가 외양간을 고치고 소를 맞이한적이 있던가? 소를 잃어버리고 외양간 고치를 반복할 뿐이다. 이제 그 소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교회는 과연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왜 교회를 세웠으며, 왜 그 교회를 당신의 몸 된 교회라고 말하는가? 세상과 담을 쌓고 만나기를 거부하는 교회는 이 사회에서 편협하고 배타적인 소수의 종교집단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안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바깥으로’ 라고 표현한다면 그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의 강조는 결국 ‘양극화’ 와 ‘개교회 우선주의’ 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지난 30-40여 년간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 교회는 2000년 대부터 서서히 저성장기를 지나 201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시대를 맞게 되었다. 수 많은 지표들과 예측들은 교회의 쇠락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미 사회로부터 잃은 신뢰, 극심한 양극화, 공동체성 상실은 후배 목회자들과 수 많은 중소형 교회들이 짊어져야 할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이보다 더 큰 부작용이 제도권 아래에서 은밀하고 급속하게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깊게 드리워져 왔다. 그리고 이제는

뵘족하게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제서야 이 문제는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것은 목회자들의 생계의 문제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교단마다 차이를 보정한다 해도 미자립교회의 비율은 이제 전체 교회의 60%를 가볍게 넘는다.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의미는 목회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목회자들이 전체 목회자들 중에 60%를 넘었다는 의미이며 앞으로는 더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각종 통계가 보여주듯 목회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생각보다 참담하고 직접적이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영역 뿐 아니라 그들을 향한 교단과 교회, 동료 목회자들의 인식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일부는 예외가 있겠지만 한국교계의 주류는 선교적 교회의 주장을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환영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입하지는 않는 것 같다. 보수화된 주류교계에서는 선교적 교회의 주장을 소위 진보적인 발상으로 여겨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모호한 개념의 특성상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기술하자면,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개교회 중심주의, 성장주의, 모이는 교회를 강조하는 교회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소위 보수적인 경향을 가졌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교회, 중대형 교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 반대로 선교적 교회, 에큐메니칼을 이야기하고, 보내는 교회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진보적인 경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미자립교회, 중소형 교회들에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에 선교적 교회와 목회자 이중직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몇몇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기사를 보기도 하지만 이미 개교회 우선주위와 보수화가 깊어진 한국 주류교계에서 애초부터 선교적

교회의 마인드로, 그것도 전업으로 목회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고 만 것이다. 선교적 교회의 마인드로 목회를 할 때 전업으로 목회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교회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선교적 교회의 방향성과 목회 사역을 포기할 것인가? 결코 그래서도 안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한 점에서 이중직 목회자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전에 그들은 보수적인 교계의 인식 속에서 때로는 일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고뇌하고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한탄하며 그 아픔을 목회자라는 사명으로, 부모라는 책임감으로 삭이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일하는 목회자들, 일을 해야만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이제 그들은 교계에서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된 것이다.

목회자는 복음전파의 사명에 그야말로 삶을 헌신한 자들이다. 그러나 복음전파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 자립된 교회의 담임목사로 사는 것만 복음전파에 헌신한 모습인가? 하나님은 그 목회만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목회 환경은 모두 다르고 하나님은 그 다름을 통해 일하시는 분 이시다. 목회자로 헌신하며 살아갈 때 변화하는 목회 환경 속에서 이중직을 해야만 하는 환경 속에서 놓일 수도 있다.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고 눈물나는 현실을 마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 발 뒤에서 보면 이 모습이, 이 일터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라면 두려울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니 주님 손 잡고 한발 한발 최선을 다해 걸어가면 될 일이다.

이 논문은 변화하는 목회환경 속에서 목회자 이중직의 현실을 고찰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이중직 사역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이지만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중직 사역은 교회의 역사에서 계속 있었던 자연스러운 사역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레슬리 뉴비긴의 삶과 신학을 통해 ‘왜 선교적 교회인가?’를 고찰하며 하나님께 부름 받고, 또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일상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선교의 자리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다를 것이 없다. 목회의 현장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터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그들이 자녀로, 부모로, 배우자로, 또한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이다. 그들의 사역은 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이며 오히려 그러한 사역이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가지 여건으로 목회가 아닌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들의 사역이 계속해서 위축되어만 가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소망의 열쇠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논문에서는 먼저 오늘날 변하고 있는 시대와 목회환경을 고찰하며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처한 현실을 각종 통계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성경과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진 인물들의 사례를 통하여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이상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던 자연스러운 사역임을 밝히고자 한다.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돌아오고 그의 복음주의적이고 에큐메니칼한 선교신학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의 선교신학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통찰을 주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선교적 교회와 겸직목회의 관계에 대한 실천신학적 고찰을 나누고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

2. 변화하고 있는 시대

2.1 급변하는 목회환경

목회자의 재정자립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필자 또한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대부분의 목회자와 그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자랐다.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과정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소명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르게 창조하시고 그 다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듯 목회자들 또한 획일화된 목회형태와 사역현장으로 부르시지 않고 각 목회자의 달란트와 환경, 비전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또한 그 목회자가 속한 공동체, 민족, 지역, 시대 등에 따라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부름 받은 목회자는 특정한 목회의 형태나 인간적 욕망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또한 자신이 속한 상황 속에서 소명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목회 형태를 분별하여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생각하면 금전적인 성공이 목적인 사람은 사업을 꿈꿔야 하고 권력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정치가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 일이다. 필자는 목회자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형태가 무엇이던, 그 장소가 어디이던, 그 대상이 누구이던 상관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기다리는 사람이 목회자이다.

사실 어떤 목회자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 부르심을 따라 갈 때 목회자나 그 가정에 재정적인 충족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불편한 정도의 감정이나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갈 수 있는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다. 목회자와 그 가정의 생존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목회자와 그 가정이 생존의 경계 위에서 그들의 삶을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사명을 포기해야 하는가?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는가?

예장통합의 교세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인 수가 2010년에는 285만 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251만명으로 약 12%가 줄어들었다. 또한 1개 교회당 평균 교인수(중앙값)는 2010년에 72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51명으로 22%나 감소했다. 교회의 소규모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교회의 현금 수입이 줄어들어 목사의 사례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재정이 부족해서 가난하게 라도 살 수 있다면 다행이다. 정말 문제는 최저생계도 영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 받는 상황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와 그 가정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에게 전업

⁵ 목회데이터 연구소, “Numbers 제 111호 - 이종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last modified Sep 10, 2020, accessed Jan 10, 2023,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111_210910_Full_Report.pdf.

사역자로 사는 삶과 사역이 아닌 다른 직업으로 사는 삶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직업을 선택할 사역자가 더 많을지 모르겠다. 자기 자신은 그렇다 쳐도 가정의 생계를 못 본 척 방치할 가장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그 목회자의 믿음의 문제나 사명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것은 상식의 영역이고, 인권의 문제이며,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불러 세우시고 훈련시킨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그 귀한 사명을 다 내려 놓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더러는 전업 목회자를 세우신다.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들이 감당할 역할과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러는 자비량 선교사, 파트타임 사역자, 겸직을 통해 사역하는 목회자로 세우신다. 그들 또한 하나님나라 확장에 귀한 조각들로 귀하게 쓰일 역할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이전처럼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는 끝난지 오래다. 교회를 세워도 3년을 유지하는 교회는 매우 소수이고 1년 만에 문을 닫는 교회도 부지기 수이다. 이런 이유로 교회들은 서로 경쟁하는 각자 도생의 상황으로 내몰렸고 다른 교회의 상황이나, 교회의 일치를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가 된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이러한 현실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이제는 신학교에서 이중직에 대해 가르치고 각 교단들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제도와 법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도 전업으로 목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믿음과 소명의 순수성을 폄훼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오히려 그러한 발상이 시대착오적인 사고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한국교회는 이제 이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전통과 편견에 의해 회피하기에는 규모가 너무나 커졌다. 이제 겸직 목회자에 대한 훈련, 격려, 전략, 그리고 후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겸직 목회 형태는 성경과 신학과 역사의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교계의 미래를 고려할 때 반드시 정착되어야만 하는 목회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겸직 목사와 함께하는 방법을 찾고 그들과 아름답게 동역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2 목회자들의 현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은 지난 2018년 교단 소속 8,637개 교회를 설문조사한 결과 약 43%에 해당하는 3,690교회가 연간 예산 3,500만원 이하의 미자립 상태였다고 밝혔다.⁶ 교단의 공식적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자립교회도 있는 만큼 실제 비율은 이보다 높을 것이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기에 미자립교회의 상황은 실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2018년 교단 소속 교회의 평균 자립률을 65%로 보고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236개 교회 중 1,460개 교회가 자립(65%)이었고, 그 절반 정도인 776개 교회는 미자립 상태(35%)였다. 반면 충청권의 경우 931개 교회 중 579개가 자립(62%), 352개가 미자립(38%)이었고, 전라도는 2,254개 교회 중 1,377개가 자립(61%), 877개가 미자립 상태(39%)였다.⁷

⁶ 최승현, "[합동26] 교회 42%가 예산 3500만 원 미만 '미자립'", last modified Sep 13, 2018, accessed Jan 9, 2023,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07>.

⁷ Ibid.

그러나 이 역시 공식적 통계에 잡히지 않은 교회와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합동측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 2019년 보고에 의하면 미자립교회의 비율은 48%에 달하며 자립교회들 중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1년 예산 3,000원 만원의 자립교회 기준을 간신히 넘긴 상태였다.⁸

교회갱신협의회 2017년 보고에 따르면 60%에 가까운 목회자들이 100만원 이하의 사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⁹ 2019년 한국사회의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약 460만 원인 것임을 감안하면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의 생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개척교회의 상황은 더할 나위 없다. 개척교회가 3년 안에 문을 닫는 비율은 70%까지 올라간다.¹⁰ 2019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19 팬데믹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듯 버티던 수 많은 교회들을 세차게 흔들게 되었다. 그동안 겸직 목사(목회), 즉 “자신의 목회적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생활비 일부분이나 아니면 전체를 다른 직업을 통해 충당하는 목사(목회)”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왔지만 그것은 안타까운 목회 현실을 토로하고 한탄하는 목회자들의 뒷이야기로 치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팬데믹의 여파로 늘려왔던 목회자의 재정자립 문제는 붓물 터지듯 쏟아져

8 Ibid.

9 박노진, "성장이 멈춰버린 한국교회 진단", last modified Mar 30, 2020, accessed Jan 10, 2023, http://www.ikidok.org/ca_theology/detail.php?aid=1585569759&PHPSESSID=823b917366f8f9adc32f1f68ad16fdbc

10 이지희, “한국교회 미래 희망 위해 젊은 세대 전도에 올인해야”, last modified May 14, 2020, accessed Jan 8, 2023, <https://missionnews.co.kr/news/582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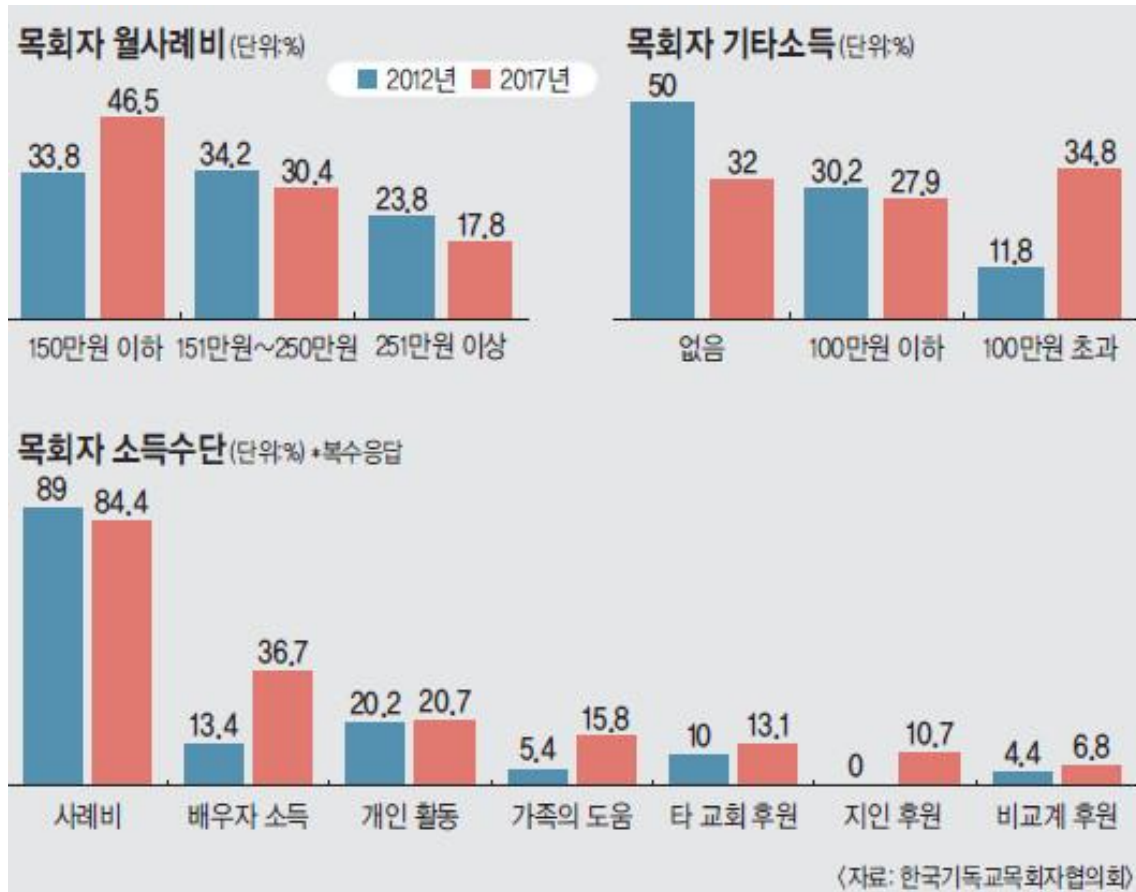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 문제는 더이상 음성적인 문제가 아닌 한국교회 전체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지 체감의 수준을 넘어 다양한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다. 2017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목협) 조사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목회자들의 평균 사례비는 176만원으로 조사됐다.¹¹ 2012년 조사 결과 213만원에서 약 17% 감소한 수치다. 월 사례비가 150만원 이하라고 답한 목회자는 무려 46.5%에 달했다. 사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목회자는 2012년 조사 48%에서 60.5%로 상승했다.¹² 이에 반해 목회자들의 기타소득은 2012년 47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증가했다. 기타소득은 배우자 수입, 기타 기관의 후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실제로 ‘배우자가 다른 직업을 갖고 생계에 보탬을 준다’ 고 답한 비율이 2012년 13.4%에서 36.7%로 크게 증가했다.¹³ 결국 줄어든 사례비를 충당하기 위해 배우자가 일을 하거나 여기저기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11 이현우, "목회자 46% 月 사례비 150만원도 못 받는다" last modified Jan 11, 2018, accessed Jan 8, 2023,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3882305>

12 Ibid.

13 Ibid.



<그림 1> - “2017 목회자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last modified Jan 11, 2018,
accessed Jan 8, 2023,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3882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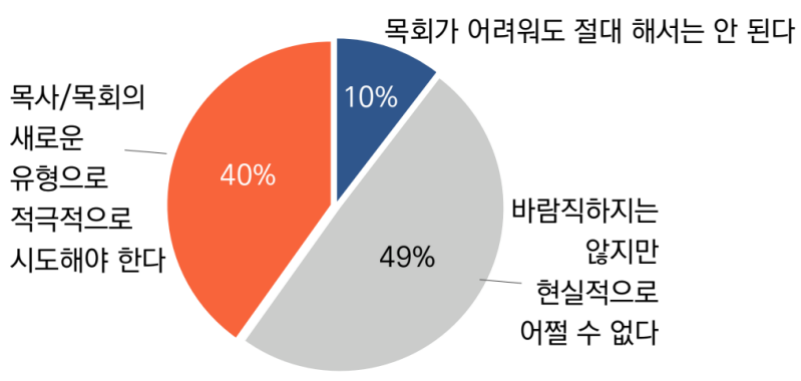
자연스럽게도 겸직 목회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목회자가 목회와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다” 고 답변한 목회자 비율은 6년 전 42.2%에서 55%로 늘었다.¹⁴ 이는 겸직목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일반 성도의 비율(39.9%)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교계에서는 대개 교인 수가 1천 명이 넘는 대형교회를 전체 7만여개의 한국교회 중 약 5% 미만으로 집계하고 있고 100명 미만의 교회는 약 70%에

14 Ibid.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대략 5만 개에 이르는 소형교회 목회자들은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

2.2 목회자들의 현실

한국목회자협회가 여론조사 기관인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50명 이하의 성도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이중직에 대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는 반대의견(10.4%)보다 ‘새로운 목회유형으로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는 찬성의견(40.1%)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절반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는 조건부 찬성의견(49.4%)이 차지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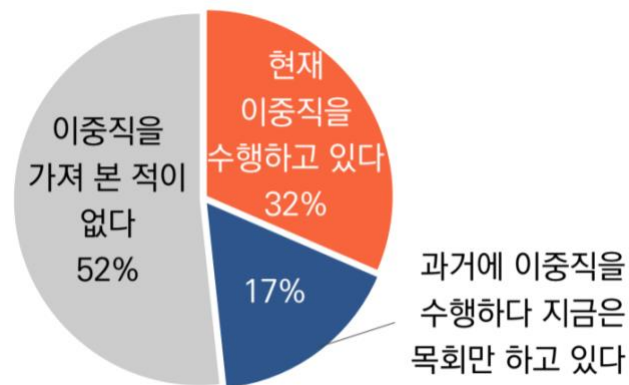


<그림 2> - “목회자가 이중직 갖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 목회데이터 연구소, last modified Sep 10, 2020, accessed Jan 10, 2023,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111_210910_Full_Report.pdf.

15 Ibid.

16 목회데이터 연구소, “Numbers 제 111호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last modified Sep 10, 2020, accessed Jan 10, 2023,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111_210910_Full_Report.pdf.

조사 대상자 중 현재 이중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중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6%였다.¹⁷ 작은 교회 목회자들 중 절반 가까이는 실제로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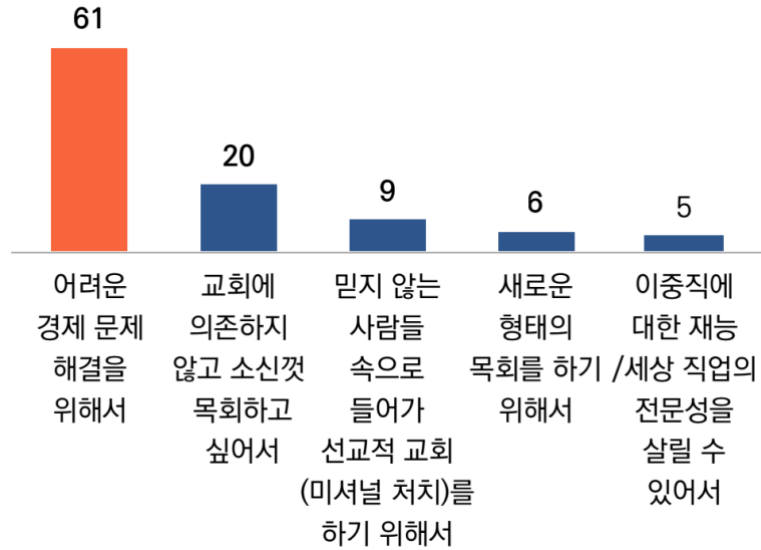


<그림 3> - “이중직 목회자 비율”, 목회데이터 연구소,
last modified Sep 10, 2020, accessed Jan 10, 2023,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111_210910_Full_Report.pdf.

이중직을 찬성하거나 시작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¹⁸(45.2%)”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7 Ibid.

18 Ibid.



<그림 4> - “이중직 수행 이유 (상위 5개)”, 목회데이터 연구소, last modified Sep 10, 2020, accessed Jan 10, 2023,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111_210910_Full_Report.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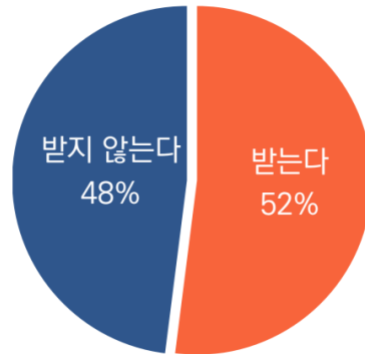
이와 관련한 2단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중직 수행을 하는 목회자들의 이중직 수입은 평균 132만원으로, 교회에서 지급되는 사례비 평균(78만원)을 크게 앞질렀다.¹⁹

구 분	금 액(평균)	비 중	비 고
이중직 수입	132만 원	64%	
교회 사례비	40만 원	19%	사례비 받는 경우 평균 78만 원
기타	35만 원	17%	
계	207만 원	100%	

<그림 5>- “이중직 목회자의 월 수입”, 목회데이터 연구소, last modified Sep 10, 2020, accessed Jan 10, 2023,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111_210910_Full_Report.pdf.

19 Ibid.

사례비를 단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거의 절반(47.7%)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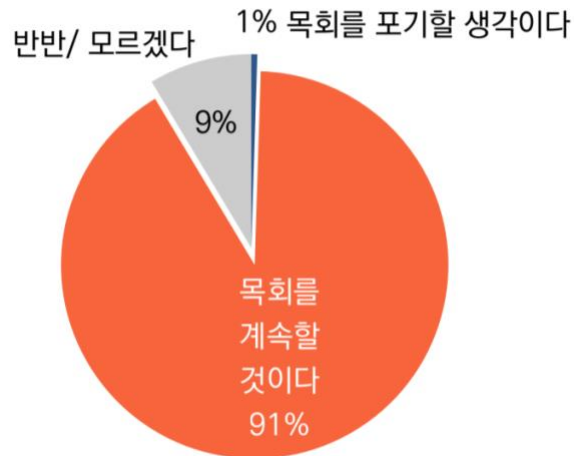
<그림 6> - “이중직 목회자의 월 교회 사례비 받는지 여부”, 목회데이터 연구소,
last modified Sep 10, 2020, accessed Jan 10, 2023,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111_210910_Full_Report.pdf.

이중직을 중단할 만큼 교회 재정이 좋아지리라고 예상하는 시기가 언제쯤이냐는 질문에도 58.2%가 ‘모른다’고 대답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미래 경제상황을 불투명하게 전망하고 있다.²⁰

상황이 이러함에도 목회자들 대다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각오를 보였다. 목회계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중직 목회자 중 90.9%가 ‘목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대답했다.²¹

20 Ibid.

21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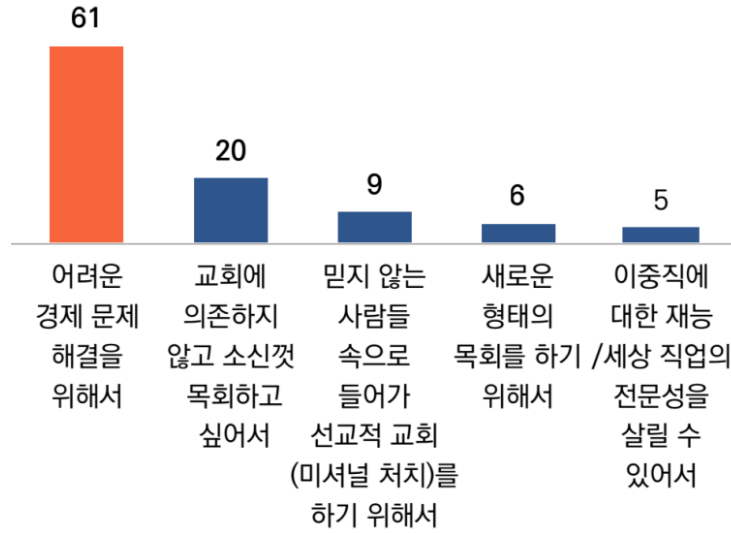
<그림 7> - “목회를 계속할 의향”, 목회데이터 연구소,
last modified Sep 10, 2020, accessed Jan 10, 2023,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111_210910_Full_Report.pdf.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목회에 ‘만족한다’ 는 응답이 52.7%(매우 만족 23.2%, 약간 만족 29.5%)로 ‘불만족’ 이라는 응답(18.2%)을 3배 정도 앞섰다.²²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택하는 데는 경제적 이유 말고 다른 원인도 있다는 점이다.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소신껏 목회할 수 있어서’ (23.2%)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선교적 교회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12.4%) ‘재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서’ (8.8%) ‘새로운 형태의 목회를 할 수 있어서’ (6.3%) ‘평신도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서’ (3.9%) 등의 기타 응답들의 비율을 합치면 오히려 경제문제 해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을 넘어선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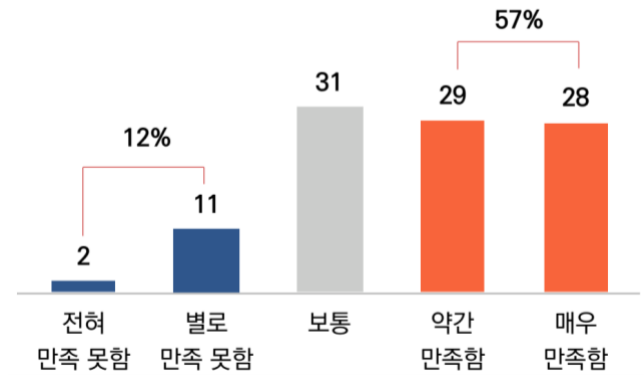
22 Ibid.

23 Ibid.



<그림 8> - “이중직 수행 이유 (상위 5개)”, 목회데이터 연구소, last modified Sep 10, 2020, accessed Jan 10, 2023,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111_210910_Full_Report.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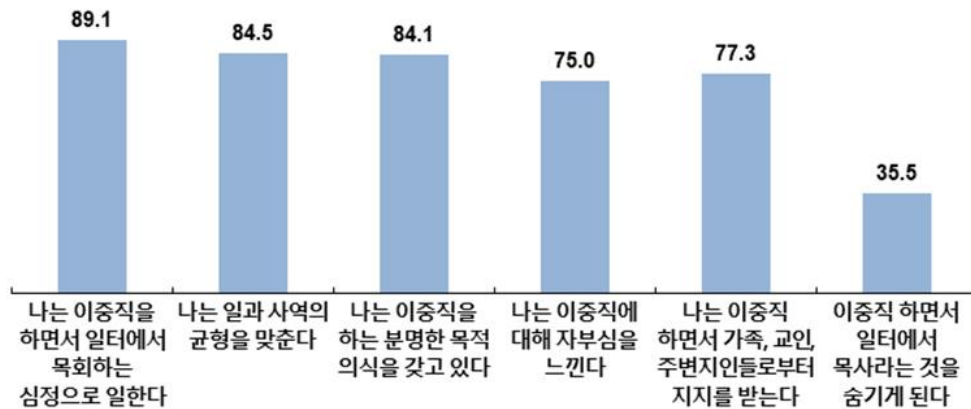
현재 이중직을 수행하는 목회자들 중에서 자신의 이중직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56.8%로 나타나고, 아직 경험이 없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중직 수행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이 45.2%에 이르는 것은 실제로 이중직이 목회자들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²⁴



<그림 9> - “이중직에 대한 만족도(이중직 목회자)”, 목회데이터 연구소, last modified Sep 10, 2020, accessed Jan 10, 2023,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111_210910_Full_Report.pdf.

24 Ibid.

설문에 따르면 목회자가 목회 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다수 신자들이 인지하고 있으며(75.9%),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가진 신자들은 겨우 4%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목회자들이 이제 겸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거나 감추는 세태가 아님을 감지할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은 "나는 이중직을 하면서 일터에서 목회하는 심정으로 일한다"라는 응답이 89%에 이를 오히려 겸직목회에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떳떳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이중직 수행 자세”, 목회데이터 연구소,
last modified Sep 10, 2020, accessed Jan 10, 2023,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111_210910_Full_Report.pdf.

필자는 이 조사를 연구하면서 겸직 목회자들을 향한 존경심 마저 들게 되었다. 그들이 이렇게 까지 힘든 일을 하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심, 소명 때문이 아닌가? 그들이 만일 목회의 사명을 내려 두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누구보다 탁월함을 발휘할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나 그들에게는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목회자로써의 사명이 있기에 비록 교인이 몇 명 남지 않아서 교회의 존폐를 염려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되새기며 목회의 직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겸직 목회자들이다. 그 누구보다 목회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수고하며, 고난의 길을 자처하여 두세 사람의 몫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 이중직 목회자들이다. 그들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과 존경이 되어야 마땅한 자들이다.

조사 개요

조사 1. 일반 교회 목회자 대상 조사

- 조사 목적 : 일반 교회 목회자의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 파악
- 조사 대상 :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 표본 틀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및 ‘통합’ 소속 담임 목사 리스트
- 표본 추출 방법 : 편의 추출(Convenience Sampling)
- 표본 크기 : 400명(유효표본)
- 조사 방법 :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핸드폰을 통해 url 발송)
- 조사 기간 : 2021년 6월 10일 ~ 6월 17일(7일간)

조사 2. 이중직 목회자 대상 조사

- 조사 목적 : 이중직 목회자 실태 파악
- 조사 대상 :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이중직을 하는 담임목사
- 표본 틀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및 ‘통합’ 소속 목사 리스트, 햇불회 소속 목사 리스트, 목회데이터연구소 DB, 페이스북의 ‘일하는 목회자’ 그룹 회원
- 표본 추출 방법 : 편의 추출(Convenience Sampling)
- 표본 크기 : 220명(유효표본)
- 조사 방법 :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핸드폰을 통해 url 발송)
- 조사 일자 : 2021년 6월 10일 ~ 7월 1일(21일간)

[조사 주체 및 주관 기관]

- 조사 주관 : 목회데이터연구소
- 조사 주체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회자립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 조사 후원 : 사)아시안미션, 주)위비스, 주)영동개발, 햇불회
- 조사 수행 : 주)지앤컴리서치

<그림 10> -“조사개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last modified Sep 10, 2020, accessed Jan 10, 2023,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111_210910_Full_Report.pdf.

3. 이중직 목회자

3.1 이중직 목회자의 정의

비커(Denis W. Bicker)는 “교회에서 유급 목회 위치에서 봉사하면서 동시에 다른 개인적 소득원을 가진 사람”²⁵ 혹은 “교회에서 유급 직책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세상 직업을 가진 사람”²⁶이라고 정의했다. The Clergy Occupational Development and Employment (CODE)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고 안수받은 성직자가 교회 밖 직장에서 전업(full time)으로 일함과 동시에 교회에서 일주일에 20~25시간 사역하는 사람”²⁷ 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함의를 정리해 보면 겸직목사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이수하고 교단의 절차를 거쳐 목사로 안수받는 자가 생존을 위해, 혹은 신학적 신념이나 목회적 소신에 의해서 목회직과 일반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목사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목사 자신은 목회직만 수행하지만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가 유지되고 있고 목회자는 경제 주체자의 경제활동을 돕는 역할(예를 들어 자녀 돌봄, 살림 등)을 하고 있다면 그 또한 넓은 의미의 두 직업 목사라고 할 수 있다.

25 Dennis W. Bicker, *The Work of the Bivocational Minister* (Vally Forge, PA: Judson Press, 2007), 2.

26 Ibid, 10.

27 Ray Gilder, *Uniquely Bivocational: Understanding the Life of a Pastor Who Has a Second Job* (Forest, VA: Salt Light, 2013), 3.

3.2 구약에 나타난 목회자 이중직

목회자의 겸직목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신학적 토대는 구약의 제사장 제도에 있다. 제사장들이 속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다른 지파들이 성전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과 기업을 통해 생활하게 하셨다는 것(신 18:1-2)이다. 이 말은 제사장들은 농사나 목축과 같은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민 18:26)이다. 그러니 오늘날 제사장인 목회자들 또한 오직 교회 업무만을 전념하면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 수익을 얻어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오늘날 목회자의 상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시내산 언약 이후 제정된 제사장 직분의 역할은, 겸직의 기준에서만 보아도, 구약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태초의 제사장이자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을 고찰해 볼 때 구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에덴동산과 성막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두 곳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는 곳”이며 (창 3:8, 레 26:12), 에덴을 “섬기고”(개역개정, “경작하고”) 지키게”하신 아담의 임무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부정한 것에서 “지키게”하신 임무와 맞닿아 있다.²⁸ 이 에덴에서 아담은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였고 그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부여

28 이박행, 양현표 편저, 『겸직목회』 (서울: 솔로몬, 2022), 221.

받았다. 곧, 아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에덴을 섬기고 지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생명과 죽음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은 것이다.²⁹

흥미로운 것은 제사장 아담이 에덴을 경작하는 직무와 오늘날 목회자의 직무를 비교할 때 중요한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조기사에서 경작은 채소가 땅에서 자라는데 필요한 사람의 노동을 뜻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 하였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 2:5),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채소”를 먹을거리를 주셨으므로(창 1:29)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경작하게 하심은 아담이 자기 음식인 채소를 얻기 위해 일하게 하셨음을 뜻한다. 더 나아가, 아담에게 맡겨진 땅의 경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동물들이 음식을 얻는 데에도 필요한 직무였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에게 푸른 “채소”를 먹을거리로 주셨는데, 이 “채소”역시 땅을 경작 할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자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담이 에덴동산을 경작하는 직무는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 곳에 모든 동물까지도 위하는 사랑의 봉사였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에덴 성전에 제사장 아담에게 한편으로는 에덴을 지키며 생명과 죽음을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통치하는 직무를 주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덴에서 아담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봉사하는 노동으로서 경작의 직무를 주셨다.³⁰

오늘날 목회자들 또한 최초의 제사장 아담이 수행했던 두 가지의 축을 수행하고 있다. 첫번째 축은 생명과 죽음을 다루는 복음 전파 직무이고, 두 번째

29 Ibid., 222.

30 Ibid., 222-223.

축은 목회자가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보살피는 직무이다.³¹ 첫번째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설교와 목양, 전도와 심방과 같은 목회사역이라고 한다면 두번째는 창조 세계를 향한 사랑의 봉사와 섬김이라고 할 수 있다. 겸직목회를 생각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두번째 영역이다. 이 영역은 목회자가 이중직을 생각하게 될 때 어떤 직종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선택하는 직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의 선하신 뜻에 맞추어 회복하고 유지하고 보살피는 목적에 부합하는 성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재정의 충당 이전에 자신이 행하는 노동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가가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선한 뜻에 궤를 같이하여 편법과 불법, 혹은 폭력과 파괴가 아닌 회복과 유지, 사람을 살리는 목적에 부합하는 성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중직을 시작해야 한다면 목회자는 그 직업을 통해서도 성령이 주도하시는 점진적 성화의 삶을 교회와 사회에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약의 제사장 제도에 담긴 신학적 함의라고 할 수 있다.

31 Ibid.

3.3 바울의 자비량 사역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겸직목회자는 사도 바울이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행 18:2-3, 개역개정)

학자들마다 바울이 가진 기술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차가 있고, 그가 가진 기술의 유래에 대한 몇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자비량 사역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강점이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첫째는 이 자비량 사역을 통해 자신 스스로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자신이 취득한 이윤으로 다른 사람들을 소신껏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 자비량 사역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 20장 33-35절에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행 20:33-35, 개역개정)

그러나 바울과 같이 왕성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자가 다른 직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수고가 요구되었음을 의미한다. 바울 역시 자신이 만난 고난을 이야기 할 때,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행

4:12)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³² 헬라어 원문으로 이 구절을 살펴봐도 “수고하여”라는 동사 (κοπιῶμεν)는 “온 몸의 힘이 다 빠질 정도로 노동하다”는 의미이다. NIV번역은 이 부분을 “we work hard with our own hands”로 번역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노동의 어려움은 단지 육체의 고됨이 아니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육체 노동을 천하게 여겼고 사람들에게 경시당하는 직군이었기 때문이다.³³ 세상 사람들은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육체노동을 업으로 삼았던 사도바울을 좋게 볼 리가 없었다.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의 속내에는 자신들이 따라야할 영적 지도자가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시선에 조금도 타협할 마음이 없었다. 그는 지원을 받으며 목회에만 전념하는 것이 눈앞의 놓인 현실만 보면 그에게는 편하다는 것을 알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9장 18-19절에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전 9:18-19, 개역개정)

당시 기독교로 새롭게 개종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기득권자나 부자들이 아닌 하층민들이었다. 바울은 자신이 일을 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이

32 Ibid., 238.

33 Clinton E. Arnold, 『강해로 푸는 고린도전서』 김귀탁 옮김 (서울: 디모데, 2019), 231.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존 맥아더는 “바울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기에 자립 선교사가 되어 세상의 구석구석을 찾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본이 되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조심스런 관계 형성으로 이웃과 함께 일함으로 이웃이 자신의 말을 경청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되어야 한다”³⁴고 말했다. 손봉호는 “바울은 복음사역이 생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비천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겨우 생계를 위해서 복음사역을 할 정도로 그렇게 수준 낮은 샅꾼이 아니란 사실을 강조했다. 샅을 전혀 받지 않고 복음 사역을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자랑이었고 그 자랑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잃지 않겠다고 했다(고전 9:15)”³⁵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이중직과 목회사역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원칙을 제공해 준다. 먼저 목회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은 그 어떤 것 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다. 설령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불가불 일을 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중직이 방해가 된다고 하면 과감히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유일한 원칙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다. 그것이 바울이 이중직을 대하는 태도였다. 목회자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적용된다. 목회자는 사역의 대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목회자의 이중직 사역도

34 John MacArthur, 『자비량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정진환역 (서울: Joy, 1991), 11-12.

35 손봉호,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월드뷰 Worldview』 (2018, 11월호), 65.

예외는 아니다. 결국 핵심은 복음 사역에 이중직 목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가 다각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단지 시간 배분이나 경제적인 부분만 해당되지는 않는다. 목회자가 섬기는 공동체의 특성, 그 사회의 인식,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 그것이 목회자의 정서와 영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목회자의 가정이 그 이중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 등.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이 이중직을 선택함에 있어서 복음 전파와 목회자의 상황 안에서 면밀하게 검토되고 분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3.5 모라비안 선교회의 자비량 선교사역

진젠돌프(Nicolaus 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의 리더십으로 시작된 모라비안의 사역은 선교사에 큰 영향력을 주었다. 모라비안 선교회는 17세기 독일 경건주의 운동에서 영향을 받아 일어나게 되었는데 김성태는 그의 저서 “세계선교전략사”에서 모라비안 선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³⁶ 첫째, 그들은 선교사 훈련 학교를 세워 선교사들을 배출하였는데 현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도 함께 준비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모라비안 선교는 소그룹을 통한 자비량 선교운동으로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여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선교비를 충당하며 선교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그들은 선교지에 대한 철저한 적응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성경복음 사업을 통해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성경을 보급할 때 그들의

36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 교회사속에 나타난 선교전략과 사례연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98.

생활습관이나 문화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하는데 성공한 것이다.³⁷

모라비안 선교사 가운데 목수 데이비드 니치만(David Nitschmann)과 도자기공 요안 도버(Joann Leonhard Dober)등은 1732년 덴마크령의 인디안 마을에 가서 자비량 선교사로 선교사역을 감당했다. 그들의 선교 표어는 “직업의 도구를 어깨에 메고 세계의 선교지로 어린 양을 따라가자”였다.³⁸ 이렇듯 모라비안 선교회의 선교전략은 직업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통해 “선교사는 자신의 선교사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하며 돈을 벌거나 저축하는 모든 일에 기쁨을 갖고 임해야 하며, 동시에 저축하고 벌어들인 모든 이윤은 선교지의 끝없는 필요를 공급하는 일반선교 헌금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했다.”³⁹

이러한 모라비안의 선교 전략과 활동은 전 세계교회에 다양한 영향력을 주었다.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에 선교단체들이 그들의 영향으로 설립되었으며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선교적 부름에 대한 큰 각성을 가져오게 했다. 또한 19세기 스웨덴의 선교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요한 웨슬리의 영국 감리교회 형성에 모라비안 선교회는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미국 선교 여행 중에 만난 모라비안 회원들의 강한 믿음은 웨슬리는 큰 감명을 받았고 그들의 실천적인 선교 방법에 매료되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 회심을 경험한 후 생명력있는 복음주의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그 가운데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Holy

37 Ibil., 103.

38 Paul E. Pierson, 『기독교선교운동사』 임윤택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403.

39 William Danker, 『역사속에서 본 비즈니스와 선교』 신대현 옮김 (경기: 도서출판 창조, 2007), 46.

Club이라는 경건운동 학생 단체가 조직되었고, 그들의 생활양식에서 유래된 Methodist, 즉 오늘날 감리교의 이름도 얻게 되었다. William Danker는 이를 평가하기를,

모라비안 선교운동이 세운 가장 중요한 공헌은 그들이 강조한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들이며 증거는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야 한다. 모라비안 선교사역을 잘 살펴보면 기독교 비즈니스맨들의 선교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곧 의사나 교사, 그리고 설교자뿐 아니라 크리스천 사업가들도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⁴⁰

이처럼 모라비안 선교회는 약 300년 전부터 세계선교를 위한 전문인 선교전략을 가지고 사역하였다. 이 영향력은 전 세계 교회에게 전달되었고 특히 오늘날 감리교회의 시작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모라비안 선교회의 선교전략은 현대 선교사의 자립 선교사역의 모델로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40 Ibid., 73.

4. 선교적 교회: 뉴비긴을 중심으로

4.1 레슬리 뉴비긴의 생애

뉴비긴은 1909년 영국 뉴캐슬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서전에 따르면 아버지는 성경을 깊이 읽고 사유가 깊었던 해운업자였고, 어머니는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한 신실한 피아니스트였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로운 건물”이라는 의미로 뉴비긴이라는 평범한 이름을 지어 주었다. 뉴비긴은 군사주의를 싫어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버크셔 레딩의 레이트튼 파크(Leighton Park)라는 웨이커 기숙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는 졸업이 가까이 올 무렵 기독교 신앙을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버리게 되었다고 말했다.⁴¹

뉴비긴은 1928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퀸스 칼리지(Queens College)에 입학했고 거기서 “기독교학생운동 (Student Christian Movement, SCM)”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해 여름, 실직한 광부들을 위한 웨이커 캠프에서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된다. 이후 2학년이 끝날 무렵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는 더비셔 카운티의 스완위크에서 열린 SCM수련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뉴비긴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였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퀸스 칼리지를 졸업 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로 가서 2년간 SCM 간사로 섬겼다. 그리고 같은 SCM 간사이며

41 Lesslie Newbigin, 『아직 끝나지 않은 길』 홍병룡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1), 44-46.

인도 선교사의 딸인 헬렌 핸더슨을 사랑하게 되어 함께 인도 선교에 헌신할 것을 결심한다. 1933년 뉴비긴은 다시 케임브리지로 돌아와 웨스트민스터 칼리지에서 3년 동안 신학을 전공하며 SCM 간사 때 찾지 못했던 의문점을 중심으로 공부에 몰두하였다. 뉴비긴은 정치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유지했는데 조셉 올드햄이 “교회, 공동체(사회), 국가”라는 주제로 1937년 옥스퍼드 대회를 준비할 때 그를 도우며 존 R. 모트, 윌리엄 템플, 존 메케이, 헨드릭 크레이머 같은 당시 초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리더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그리고 1936년 에딘버러 노회에서 스코틀랜드 교회 선교사로 안수받고, 헬렌과 결혼한 후 인도 선교를 섬기기 위해 떠나게 된다.⁴²

뉴비긴의 사역을 시간 순으로 네 단계로 구분하면, 첫번째는 전형적인 선교사로 남인도 교회를 섬긴 사역(1936-1959), 두번째는 제네바와 런던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공헌한 사역(1959-1965), 세번째는 남인도교회로 다시 돌아가 마드라스 주교로 섬긴 사역(1965-1974), 네번째는 은퇴 후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당시 영국 기독교 사회에 새로운 선교적 과제를 역설하며 씨름한 사역(1974-1998)으로 나눌 수 있다.

남인도 교회를 섬긴 사역 가운데 뉴비긴은 칸푸치람에서 1939년부터 7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다. 그는 칸푸치람에서 도시 사역과 농촌 사역을 병행하며 남인도의 다양한 교단들을 에큐메니칼한 ‘연합교회’로 묶으려는 장기 계획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약 5년이 흐른 뒤 이 논의는 ‘남인도 교회 연맹’ (Church of South India, CSI)이 탄생이라는 열매로 맺히게 된다. 뉴비긴은

42 Ibid., 50-69.

1947년 남인도 교회 연맹 창립예배에서 마두라이와 람나드 교구의 창립 주교로 임명되어 12년간 700여 회중을 섬기게 된다.⁴³

이 무렵 진행된 사역이 또 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사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제 1차 세계 총회에 자문으로 참석했다가 바로 발탁되어 제 2차 총회의 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후 직제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1961년 뉴델리에서 열린 제 3차 총회를 위해 의제를 설정했다. 1961년에는 새로 조직된 WCC 세계선교 및 전도 분과의 초대 대표 겸 WCC 부총무의 직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마두라이에서의 사역을 정리해야 했고 사랑하는 인도의 회중들과 작별을 고해야만 했다.⁴⁴

그 후 뉴비긴은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1960년에는 아프리카 전역을 순방하고, 이듬해에는 태평양 지역과 남아메리카를 돌아다녔으며, 1962년에는 카리브 해 연안을 방문하였다. 그 어간에는 태국과 일본, 북아메리카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시간은 흘러 1965년 말 5년의 임기가 끝나면서 그는 마드라스 주교로 임명되었고 온 가족이 다시 인도로 돌아오게 된다. 뉴비긴은 300백만 명에 육박하는 도시에서 여러 구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회의 개척과 자립, 그리고 교회의 통합을 위해 일하며 은퇴하기 전까지 주교로 사역하게 된다.⁴⁵

그는 은퇴 후 두 달에 걸쳐 마드라스에서 잉글랜드까지 두 달에 걸쳐 육로로 여행하였고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서구 세속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43 Ibid., 89-105.

44 Ibid., 208-220.

45 Ibid., 248-300.

선교사로 살았다. 뉴비긴은 버밍햄에 정착하고 5년 동안 셀리 오우크 칼리지(Selly Oak Colleges)에서 초빙 받아 선교학 강의를 담당했다. 이 강의는 1978년 “오픈 시크릿”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다.⁴⁶ 아울러 연합장로교단의 목사가 되어 1981년에는 버밍햄의 윈슨 그린에 소재한 교회를 맡아 7년간 사역하게 된다.⁴⁷

뉴비긴은 은퇴 후 많은 글과 저서를 남기게 되는데 1983년에 출간한 “1984년의 이면” (The Other Sides of 1984: Questions for the Churches)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는 당시 세속화된 교회에 일침을 가하는 그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는 모두 열네 권의 책과 160편의 글을 썼는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Foolishness to the Greeks),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The Gospel in a Pluralistic Society),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 (Truth to Tell: The Gospel as Public Truth), “타당한 확신” (Proper Confidence), “누가 그 권위를 죽였는가” (Truth and Authority in Modernity) 등이 있다.⁴⁸

뉴비긴은 말년을 1992년 입주한 런던 남부에 있는 집에서 보냈다. 이 기간에 Holy Trinity Brompton 신학교와 관계를 맺어 출강을 하게 되었고 그는

46 Lesslie Newbigin, 『오픈 시크릿』 홍병룡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2).

47 Ibid., 424-465.

48 Lesslie Newbigin, *The Other Side of 1984*, 『기독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이문장 역 (서울: 대장간, 1994). *Foolishness to the Greeks: The Gospel and Western Culture*,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홍병룡 역 (서울: IVP, 2005).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역 (서울: IVP, 2007). *Truth to Tell: The Gospel as Public Truth*,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 김기현 역 (서울: SFC, 2008). *Proper Confidence*, 『타당한 확신: 기독교 제자의 믿음, 의심, 확실성』 박삼중 역 (서울: SFC, 2013). *Truth and Authority in Modernity*, 『누가 그 권위를 죽였는가』 홍병룡 역 (서울: IVP, 2005).

그곳에서 88세의 일기로 1998년 숨을 거두게 된다. 그의 인생은 은퇴 후 24년이 가장 빛났다. 전 세계 신학계가 그를 주목했다. 이런 그의 선교 사역과 신학적 숙고가 통합된 삶을 보고 웨인라이트(Geoffrey Wainwright)는 그의 저서 “레슬리 뉴비긴: 신학적 생애” (Lesslie Newbigin: A Theological Life” 서문에서 뉴비긴을 초대교회의 교부들과 비견하며 그는 깊은 신학적 통찰과 선교적 실천을 통해 올바른 기독교 신학을 구축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⁴⁹

4.2 뉴비긴의 선교신학 형성

4.2.1 복음주의적, 실천주의적 신학

뉴비긴의 선교사역과 선교적교회 운동의 시작은 그의 회심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확실한 구원의 고백이 없는 믿음으로 십대시절을 보냈다. 그러다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하였고 그곳에서 1학년 말 즈음 십자가 환상을 통한 인격적 회심을 경험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회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회심의 경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채 바꾸었다. 회심과 관련하여 뉴비긴은 “죄와 구원” (1956년)이라는 책에서 밝히기를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⁵⁰ 또한 “중생”은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러나 날마다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육신과 성령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⁵¹ “칭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형벌을 떠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심판을 받은 동시에

49 Geoffrey Wainwright, *Lesslie Newbigin: A Theological Lif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st edition, 2000) v.

50 Lesslie Newbigin, 『죄와 구원』 홍병룡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3), 133-39.

51 Ibid., 143-47.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⁵²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사랑하는 자녀가 누리는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 받고 나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행동할 마음이 생긴다.⁵³ “성화”는 더러움에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성화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상처주고 있는 것을 깨닫고 천천히 고쳐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지만, 날마다 성장한다. 성장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점차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⁵⁴

또한 그는 성경의 권위를 가장 우선하는 목회자였다. 그는 신학교에서 로마서 원문을 가지고 씨름했으며, “요한복음 강해”도 출간한 적이 있다. 그는 세계교회를 섬기면서 늘 성경의 지혜와 권위에 의지하며 성경을 탐독하였다. 후대에서 뉴비긴의 신학 사상의 기초가 되는 네 가지를 꼽을 때 그 중에 한가지를 성경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뉴비긴의 경험과 글을 통해 그의 신학이 복음적인 배경위에서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⁵⁵

뉴비긴은 이런 복음적인 배경 위에서 실천적인 신학을 추구했다. 어쩌면 복음의 방향을 순종하며 따라 나갔을 때 실천적인 영성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는 회심 후 그가 속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다. SCM 간사 시절에는 글라스고 지역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했다. 인도에서 사역할 때에느 칸푸치람, 마드라스, 마드라이 등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았으며, 길거리전도, 농촌마을사역, 불가촉천민 사역, 기독교관 사역 등 선교의 대상도

52 Ibid., 149.

53 Ibid., 156.

54 Ibid., 162.

55 Newbiggin, 『아직 끝나지 않은 길』 475-480.

가리지 않았다. 뉴비긴은 영국으로 돌아와 버밍햄에 정착한 후에도 작은 도시 목회를 감당했다. 이러한 실천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그의 방향성은 언제나 그의 생각을 외부로 향하게 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를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의 리더로 이끌어 준 것이다.⁵⁶

4.2.2 에큐메니칼 복음주의

레슬리 뉴비긴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가장 큰 가치로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리더였다. 그가 속했던 “기독교학생운동” (Student Christian Movement, SCM) 자체가 에큐메니칼적 성향을 가진 단체였다. 그는 그곳에서 간사로 섬기며 위대한 초창기 에큐메니칼 운동가들 - 존 R. 모트, 조셉 올드햄, 윌리엄 템플, 존 메케이, 헨드릭 크레이머 같은 거장 - 을 만났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의를 받아들여 그의 사역을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⁵⁷ 그는 인도 선교사로 가서 남인도교회(Church of South India)의 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가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분의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⁵⁸

56 Ibid., 488-495.

57 Newbigin, 『죄와 구원』, 60.

58 Newbigin, 『아직 끝나지 않은 길』, 487.

결정적으로 그의 이러한 주장들이 그의 저서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1952년, 뉴비긴은 글래스고대학의(University of Glasgow) 강좌(Kerr Lecture)에서 교회론을 대해 강의하고, 이 강의의 내용은 1953년,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뉴비긴에게 교회의 본질은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은 가시적 공동체이다.”⁵⁹ 이 백성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받은 백성이며 그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다. 그러니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땅끝까지”, 즉 종말론적이고, “복음을 전하라”, 즉 선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생각할 때 교회의 길은 통합과 확장의 방향 속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길은 교회를 자연스럽게 에큐메니칼로 이끈다는 것이다.

뉴비긴에게 교회의 연합은 단지 “제도적인 멋”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뜻 자체의 본질적인 표상이었다. 그는 “화해의 복음은 오직 화해된 교제에 의해서만 전해질 수 있는 법”⁶⁰ 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의해 가시적으로 화해된 신자들의 공동체만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의 연합을 위해 헌신했던 것이다.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근원인 그리스도께 돌아가자고 요청하는 것이다. 서로를 정직하게 대면할 때 전통의 껍질을 뚫고 들어가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만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만남을 통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재고하라는 도전을 받음에 따라 우리는 교회의 궁극적 비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통해 생명에 이르는 그 진리를 다시 대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59 Ibid., 30-34.

60 Leslie Newbigin, 『교회란 무엇인가?』 홍병룡 역 (서울, IVP: 2002), 141.

안에서 대속 사역을 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로 엮으시는 것을 허용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그 속죄에 동참하라고 권하고, 그 속죄의 열매이자 모든 나라와 세대에 그것을 전하는 도구이며 종말 때의 최종적 성취의 표지인 그 가족의 삶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화해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권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⁶¹

이렇듯 그는 선교는 일치에, 그리고 일치는 선교에 의존한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가 선교적 소명을 등한시 할 때는 일치에도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는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부여하신 선교적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믿은 것이다.

4.2.3 선교적 교회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선교는 주로 지역 교회나 각 교단 차원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었다. 계몽주의, 산업혁명 등의 여파는 교회에도 들어왔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선교 사역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러한 즈음 1960년 뉴비긴은 “미시오 데이” (Missio Dei)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선교의 근본적인 개념을 새롭게 하였다. 즉 교회의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가 구분 되어야 하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일도 없다. 교회의 실존을 부여하는 그것이 또한 교회에 세계-선교를 부여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61 Ibid., 184.

보내노라' ”⁶² 이러한 그의 주장은 “모든 민족을 향한 교회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⁶³로 발전한다. 즉, 선교는 애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며 교회가 행하는 선교는 이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선교의 주체가 개인이나 교회나, 교단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보이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선교가 우선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것이 선교들에 있는 원초적 실재다. 나머지는 파생적이다.”⁶⁴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 ,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선교는 무엇인가?’ 에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고헨은 “교회의 소명” 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선교한다는 것은 첫째, 성육신하신 예수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 일은 그리스도가 하셨던 방식, 곧 삶과 말과 행위를 통해 해야 한다. ...둘째,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다. 그것은 패배처럼 보이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제시하고, 갈등과 고난의 길을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과 동일시하며 동시에 세상을 왜곡하는 죄를 거부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또한 부활의 승리사건을 통해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 선교의 사역으로 나타나야 한다. 셋째, 살아 계시며 높여지신 주님과 관계 안에 그리고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통합되었으며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사시면서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계속하신다. ...선교는 살아 계신 주님과 나누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소통을, 또한 역사의 주님에 대한 순종과 선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하는 선교는 성령의 능력안에 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선교를 성령의 사역에 대한

62 Michael W Goheen, 『교회의 소명』 이종인 역 (서울: IVP, 2021), 141.

63 Ibid., 140.

64 Leslie Newbigin,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홍병룡 역 (서울: IVP, 2005), 134-135.

전적이고 완전한 의존 가운데 수행하셨다. 그런 다음에 동일한 성령이 교회에 부여져서 교회가 세상에서 자신의 선교를 위해 준비되게 하셨다.⁶⁵

뉴비긴에게 선교는 무엇보다도 구별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의 저서,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에서 그의 결론과 같은 주장은 “교회가 새로운 사회 체제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는 그 자신이 새로운 사회 체제가 되는 것이다.”⁶⁶ 교회는 모든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 내는 공동체로서 보이고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뉴비긴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각 개인, 공동체, 민족, 문화, 사회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화될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선교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갈 목적지와 같다. 그러나 그 목적지로 향하는 길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 그 길은 각 개인이, 각 교회가, 그 사회와 민족이 각각의 시대와 환경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백 명의 회중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는 한 교회이니 한 가지 선교만 몰두한다고 하면 그것은 뉴비긴의 접근이 아니다. 그는 백 명의 회중이 각각 자신의 삶을 선교지 삼아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선교는 백 가지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가진 엄청난 힘이다. 그는 말하기를, “교회의 엄청난 우위는 밭, 가정, 사무실, 공장 또는 법정에서 일하는 수 많은 구성원의 증언이기 때문이다.”⁶⁷

65 Goheen, 『교회의 소명』, 147-148.

66 Lesslie Newbigin,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 김기현 역 (서울: SFC출판부, 2008), 85.

67 Ibid., 6.

이러한 선교적 인식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된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한 선교지이며 우리는 보냄 받은 선교사가 되기 때문이다. 뉴비긴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 그 모든 보물을 위탁받았다는 것과 선교가 교회의 삶의 핵심에 속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또 그것을 교회의 일상적 삶으로 실천할 때 가능하다”⁶⁸라고 말한다. 이것이 보냄 받은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사회 체계를 이루는 방법이다. 기존 문화를 거부하거나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스며들어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 사랑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회와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뉴비긴의 생애와 주장들을 종합해 볼 때 그가 말하는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선교적 교회는 온 우주의 궁극적 심판과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선교이다. 그러나 이 선교는 무조건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그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환란을 만나게 되어 있다. 선교적 교회에 동참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반드시 환란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찾아 온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상징하여 보여주듯이 선교적 삶은 패배처럼 보이나 결국 승리의 표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로의 참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신 승리의 소망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또한 선교적 교회는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선교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진다. 이러한 동일한 선교적

68 Newbigin, 『교회란 무엇인가?』, 176.

마인드를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공동체는 화해의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안에서 공적 영역을 함께 살아가게 된다. 선교적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의 전문성과 더불어 복음의 권능을 힘입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복음의 폭발적인 확장성은 자연스럽게 이들의 시선을 개 교회와 가정을 넘어, 지역사회로, 궁극적으로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 선교사 개인이나 특정 선교단체나 교회의 선교가 아닌 하나의 교회로써 세계 복음화를 추구해야 한다.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는 지체이며 같은 팀 인 것이다. 그렇게 하나 된 교회는 시너지를 발생시킨다. 개인이나 공동체 단위에서 할 수 없었던 사회 전체의 의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복음화는 결국 지역 복음화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향한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사명은 그 복음이 그 사회에 적용되는 토착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선교적 사명은 지역사회를 포함한 선교의 대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여 그들의 관점에 서는 것에서 그 첫 단추가 채워지는 것이다. 뉴비긴은 그가 인도의 한 마을에서 예수가 행한 이적에 대해 전했던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예수가 행한 기적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케임브리지에서 배웠던 방식, 즉 자연주의적 세계관의 측면으로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은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은혜를 그대로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을에 있던 사람은 짜증스런 반응을 보이며 말하기를, “왜 당신은 그토록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마을에서 일어났던 다수의 치유와 축귀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뉴비긴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나 자신의

기독교가 이런 혼합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나 역시 어느 정도는 예수를 내 문화의 세계관 속으로 끌어들었음을 내가 보기 시작하는 일이 서서히 일어났다.”⁶⁹ 모든 그리스도인은 특정 문화에서 태어나며 불가피하게 그들의 삶은 이런 종교적 믿음에 의해 서술된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의 접근은 그들의 문화를 통해 시작되어야 하며 결국 문화라는 토양에서 복음의 싹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다. 뉴비긴은 복음이 문화에 대해 갖는 관계를 설명하며 “마치 그것이 두개의 완전히 별개인 것들, 즉 현실에서 유리된 메시지와 역사적으로 제약이 있는 사회적 삶의 방식이 만나는 문제인 듯 다룬다”고 말한다.⁷⁰ 복음은 언제나 특정한 문화의 생활방식과 양식들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 사회 속에 세워진 문화적 공동체로 성도들은 비슷한 삶과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문화적 신념과 함께 흐르면서 교회 공동체라는 호수를 이룬다. 교회와 문화는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선교적”이라는 말은 곧 복음이 세상의 모든 문화로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⁷¹

4.3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가 이 시대에 주는 통찰

한국교회에 제기하는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의 도전은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있다. 특히 이 질문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우리에게 수도 없이 되뇌어진 질문이 아닌가?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고전

69 Leslie Newbigin, 『선교신학개요』 최성일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99.

70 Le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역 (서울: IVP, 2007), 188.

71 Goheen, 『교회의 소명』, 291.

1:2, 10:31-32, 11:22, 롬 16:16)으로 일컬어진다. 예수에 의해 예기되고 성령의 임재에 의해 탄생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존재한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 본질을 가지게 된 것이다. 교회를 나누고 쪼개기를 반복하면 결국 선교가 남게 될 것이다.

뉴비긴이 말하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아이러니하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밖에 있고, 세상은 교회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안에도 있다. 그는 말하기를,

교회는 세상에 반대해 세상을 위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세상에 반대한다. 교회는 인간 공동체를 위해 그 장소에, 그 마을에, 그 도시에, 그 나라에 있다. 이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 계신다는 의미에서 그렇다.⁷²

그러므로 교회에게는 역설적 이중의 잣대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문화를 받아들여 그 문화와 연대하며 살아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와 분리되어 문화의 우상숭배에 반대하며 회개와 회심으로 그들을 이끄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가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교회는 자신들이 서 있는 문화, 시대, 전통, 이데올로기와 연대한다는 의미이다. 이 연대를 통해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게 변화와 회개를 끊임없이 촉구하는 방식으로 교회는 세상을 반대해야 한다. 뉴비긴은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 내세성” 혹은 “구별하는 비순응주의자” 라고 말한다.⁷³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교회 자체가 새로운 사회문화적 실재가 되어 우리의 삶이 복음과 밀접하고 실제적 관계를 맺는 구조가 되어 가는 것이다. 진리가 상대적인 가치로 치부되고 성경의 가치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 정도로 전락한 포스트모던 사회와 신이교적인 문화

72 Ibid., 242.

73 Goheen, 『교회의 소명』, 297.

가운데서 선교적 교회는 일종의 대안공동체로써 새로운 복음적 가치관을 주창하는 사회변혁의 목소리이다. 성도와 교회는 각자 속한 사회와 문화의 토대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명에 동참할 수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일예배와 주중일상을 나누지 말고,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며,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연합과 일치로 추구해 나아갈 때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교회 안에, 세상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에 간다’ 거나 ‘예배를 본다’ 는 표현이 매우 적절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선교적 교회는 ‘사람이 교회다’, ‘내가 교회다’, ‘교회로 살아야 한다’, ‘일상이 예배의 자리, 선교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고 말하는 것이다. 성전은 근본적으로 공간 지향적이고 모임 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포로기에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회당도 마찬가지이다. 예수께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부정하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는 자신의 몸을 대안적인 성전으로 제시하였다(요 2:19-21).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 (롬 12:4-8; 고전 12:27)이라고 표현하였다. 공간과 건물 중심의 성전 개념이 공동체 중심, 성령의 통치와 연합의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디트리히 본회퍼(D. Bonhoeffer)는 이 세상에서 집단인격으로 존재하는 신앙 공동체를 그리스도와 연결함으로써 이 두 가지 구성요건을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으로 종합하려고 했다. 그는 말하기를, “모든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전체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 이다.

교회는 ‘공동체(교회)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이다.⁷⁴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체라는 의미가 아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의미이다. 선교적 교회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선교적 교회의 관심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닌 세상으로 나가는 것에 있게 된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은 주로 ‘모이는 것’에 강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한 번에 모으려고 하니 교회가 대형화, 백화점화, 프랜차이즈화 되어 많은 수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모이는 것도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살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을 공동체로 모으셨다. 방향으로 표현하면 밖에서 안으로 모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셨다.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오병이어로 오천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성자 하나님 이신데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 대화상대나 제자들의 의전수행이 필요했나?’ 그렇지 않다. 필자의 결론은 그것은 “보내심”에 있다는 것이었다. 제자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고, 훈련시키셨고, 이적들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며 예수

74 Dietrich Bonhoeffer, 『성도의 교제』 유석성, 이신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71.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모델 삼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보여 주신 것이다.

예수가 말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의 맥락은 “모여라, 배워라, 안주하라, 머물라, 누려라” 여기에 있지 않다. “모였으면 다시 흩어지라” 고 하신다.

“배웠으면 너도 가르치라” 고 하신다. “안주하지 말고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라” 고 하신다.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나아가라” 고 하신다. “거저 받은 것 거저 베풀라” 고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져 세상으로 나아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 필자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은 제도화되어 경직화, 형식화, 보수화 되어가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에 있다고 믿는다.

자본주의와 물량주의가 초래한 교회의 세속적인 변화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대형교회로 향하는 비전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실제 기독교계 안에서도 큰 교회는 좋은 교회, 능력이 있는 목회자로 반면 성장이 저조한 농촌 교회나 상가 교회는 실패한 목회, 능력이 부족한 목회자, 문제 있는 교회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 안에서 누가 작은 교회에서 행복한 목회자와 성도로 머물 수 있겠는가? 중소형교회에서 대형교회로 수평이동을 조장할 뿐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주적 교회로써 같은 팀으로 서로 연대하는 것이 교회들 끼리, 목회자들 끼리, 성도들 끼리 서로 경쟁하고 견제 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입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임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곳을 영민하게 분별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 찾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기준과 방법으로 선택한다. 교회의 성장은 그 자체로 죄는 아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조건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도 이상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르심, 목회자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문제이다. 세상의 사조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 성장은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마약이 되고 만다. 교회는 애초부터 세상에 세워졌다. 세상은 빠른 성장, 가장 큰 것, 가장 높은 것이 능력과 진리라고 여긴다. 온 사회가 이것을 향해 달려간다. 이러한 사회 속에 세워진 교회가 이러한 사회의 속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끊임없이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고 매일매일 복음으로 갱신되는 길 뿐이다.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이 말하는 본질이 바로 교회를 감싸고 있는 굳어진 성벽을 뜯어내고 복음의 대상들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것에 있는 것이다. 복음이 밖으로 나와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교회 안에만 고여 있다면 교회는 갱신되어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황을 중심으로 통일된 하나의 교회, 보편적 교회를 강조해 온 로마카톨릭의 관점이나 개신교 중에서도 교단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의 선교는 전문 단체나 부서의 역할로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교적 관점에서는 개체 교회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뉴비긴 역시 공적

영역에서 공적 진리의 우위성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인 회중 곧 지역교회만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⁷⁵ 그동안 지역교회는 우주적 교회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 왔다. 로버트 뱅크스(Robert Banks)는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지역 모임들은 흔히들 말하는 우주적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고... 각 모임은 그곳에서 모이는 “교회들”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지역교회 각각이 하늘 교회의 실제적인 표현이며, 성격상 본질적으로 영원하며 무한한 것을 시간과 공간 안에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⁷⁶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각각의 지역교회는 전체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닌 그 자체로 선교적 본질을 가진 온전한 교회인 것이다. 이 의미는 각 개체 교회들이 선교에 대해서 후방에서의 지원과 간접적인 후원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선교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멀리 볼 것도 없이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도 수 많은 선교의 대상이 있고, 각 성도가 속한 가정, 일터, 공동체에도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적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의 방향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적’이라는 단어는 교회와 복음을 들어야 할 세상과의 관계성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다.

사실 선교적 교회론이 말하고 있는 주장은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현상과 현실을 읽어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렌즈와 그것에 의한 강조점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와 우리의 삶에서 이 선교적 교회론의 주장이 주목받는다라는 것은 이 시대가 그것을 필요할 정도로 교회적

75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419.

76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IVP, 2007), 86.

현실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교회가 집중형 교회가 되고, 상명하복의 수직적 조직을 갖게 되고, 제도와 전통, 형식을 강조하게 될 때 계속해서 위축되어 가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것에 대항하고 개혁하며 확장되어 온 역사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통해 새롭게 행하실 선한 일들을 기대해 본다.

4.4 선교적 교회와 겸직목회의 관계에 대한 실천신학적 고찰

4.4.1 선교적 마인드와 겸직목회의 관계

선교적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선교)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땅끝)에 전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사명의 성취에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모든 성도와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을 받았으며 이 위대한 사명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존재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뉴비긴이 말하는 미시오 데이(Missio Dei)에 참여는 바로 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뉴비긴은 빌링겐 보고서(Willingen report)에서 말하기를,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일도 없다. 교회에 실존을 부여하는 그것이 또한 교회에 세계-선교를 부여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⁷⁷

77 Goheen, 『교회의 소명』, 141.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활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향하고 행했던 그 사역에서 찾을 수 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와 섬김의 활동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수렴된다. 선교적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일터 속에서, 즉 이 세상 속에서도 이뤄져야 함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지향성은 단지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그 사역의 종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 날도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이 차이를 “교회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대비하여 설명한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러나 교회에만 속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때로 의와 자비와 진리를 간과한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느냐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느냐를 생각한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킬까 봐 염려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⁷⁸

이렇듯 선교적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관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발견하고, 보냄 받은 백성으로서 선교적 정체성을 실현하며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78 Howard A. Snyder,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리고 세상』 박민희 역 (의정부: 드림북, 2007), 11.

것이다. 이러한 강조는 기존의 성장을 강조하거나, 건강을 강조했던 교회관과는 명백히 다른 지향점을 나타낸다. 스테처(Ed Stetzer)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차트로 보여준다.⁷⁹

<그림 12> - “Church Growth, Church Health, and Missional Church”, Breaking the Missional Code (Ed Stetzer, 2006)

Church Growth	Church Health	Missional Church
Members as Inviters	Members as Ministers	Members as Missionaries
Conversion / Baptism	Discipleship	Missional Living
Strategic Planning	Development Programs	People Empowerment
Staff-Led	Team Leadership	Personal Mission
Reaching Prospects	Reaching Community	Transforming Community
Gathering	Training	Releasing
Addition	Internal Group Multiplication	Church Planting Multiplication
Uniformity	Diversity	Mosaic
Anthropocentric	Ecclesiocentric	Theocentric
Great Commission	Great Commandment	Missio Dei

⁷⁹ Ed Stetzer, *Breaking the Missional Code: Your Church Can Become a Missionary in Your Community* (Nashville: B&H Academic, 2006), 49–50.

위 차트가 보여주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론은 프로그램에서 변화의 과정으로, 모델에서 선교사역으로, 주의를 끄는 데서 성육신적으로, 단일성에서 다양성으로, 전문적인 데서 열정적으로, 정착에서 파송으로, 결단에서 제자들로, 더하는 데서 기하급수적으로, 업적에서 운동(movement)로 이동하는 페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⁸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교회로 모을 수 있을까?’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는가?’, ‘자신을 교회의 일부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각자가 발휘해야 하는 “선교적 창의력”이다. 목회자의 리더십에 이끌려 선교에 동참하는 것, 교회의 행사나 캠페인으로 선교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마인드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상황, 달란트, 삶의 여건 가운데 자신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창의적으로 그 비전을 각자의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다.

뉴비긴은 이 시대의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는 복음을 믿는 회중의 삶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왕 같은 제사장직은 “세상의 일터에서 영위하는 일상적인 삶과 일”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상기시켰다.⁸¹ 그는 지도자들에게 이어서 말하기를, “여러분의 사명은 교인 전체를 이끌고 사회

80 Ibid., 48, 59-71.

81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431-432.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 개개인의 생활 뿐 아니라 공적인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선포하고, 거기서 그분의 통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일”⁸²이다.

4.4.2 만인 제사장

만인제사장 개념은 타락한 가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이루게 한 단초가 되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사실 이 용어를 원개념에 더 가깝게 풀어서 해석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닌(priesthood of all) 모든 “성도”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음(priesthood of all believers)을 의미하는 “온 성도 제사장직”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의미는 모든 성도에게 제사장의 영적권위가 동일하게 부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구약이나 로마 가톨릭의 관점에서 보면 신선함을 넘어 혁명적인 개념이 아닐 수 없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혈통의 계보를 따라 이어지는 직분으로써 이스라엘의 레위지파에 속한 이들 가운데서도 아론의 혈통에서 세워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40:12-15; 민18:1-7) 또한 로마 가톨릭의 관점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계층적으로 구분하고 성직자만이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⁸³ 그러나 만인제사장 이론의 주장은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구약적 의미에서의 제사장 개념은 파기되었고

⁸² Ibid., 437.

⁸³ Herman Bavinck, 『개혁교의학개요』 원광연 옮김 (파주: Ch북스, 2017), 194.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제사장의 권능이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율체니라 (히 10:19-20)

이러한 만인제사장 개념은 루터가 1520년대에 쓴 세 작품,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 (An den christlichen Adel deutscher Nation, 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교회의 바벨론 감금 (Latin, De captivitate Babylonica ecclesiae)”, “크리스찬의 자유 (De Libertate Christiana)” 에 등장한다. 먼저, 루터는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에서 만인제사장직에 근거하여 세 가지 담(wall)을 비판한다: 첫째, 세속적 계급 위에 있는 영적 계급을 비판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도 그러하니라” (고전 12:12).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각 부여 받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⁸⁴ 둘째, 교회만이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과 교황무오설을 비판한다. 그는 고전14:30; 요6:45; 갈2:11에 근거하여, 사도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듯이, 교황도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⁸⁵ 그러니 교황도 죄인이 될 수 있고, 교황의 성서해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셋째, 공의회 소집권과 결의를 확인하는 것이 교황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사도행전 15장 6절에 근거하여 사도 회의를 소집한 것은

84 Martin Luther,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지원용 옮김 (서울: 권콜디아사, 1993), 22-35.

85 Ibid.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었음을 언급하며 평신도 또한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였다.⁸⁶ 즉, 하나님 앞에서 교황과 그리스도인 농부는 부름 받은 직책이 다를 뿐이지 신분이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교회의 바벨론 감금”에서는 세례, 성만찬, 참회, 안수례, 견신례, 결혼례, 및 임종시의 도유식 등을 포함하는 중세교회의 7성례전과 계층적 사제체제를 비판하고 두 가지 성례(세례, 성만찬) 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⁷ 루터는 미사에서 주는 약속의 권위와 성물을 성별하는 권위는 집행하는 성직자에 의해 이뤄지는 기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지는 권위임을 강조했다.⁸⁸

루터는 “크리스찬의 자유”에서 성도는 자유인이며 동시에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고전9:19; 갈4:4; 빌2:4-6),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의로운 제사장임을 강조한다(벧전2:9).⁸⁹ 그러므로 그는 성도들에게도 네 가지 제사장의 직무가 주어졌으며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서로가 복음을 설교할 수 있고, 서로가 죄의 고백과 죄의 용서를 할 수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다.⁹⁰ 그는 구약적 사도가 만연해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러한 개념의 도입이 교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염려했고 혼란을 줄이고자 만인제사장론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보편적교역과 특수교역을 구분하였는데 보편적교역이 일반 성도의

86 Ibid.

87 Ibid., 138.

88 Ibid., 138-139.

89 Ibid., 263-287.

90 Ibid., 528.

성직이라면 특수교역은 공동체 차원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수행하는 교역이라고 할 수 있다.⁹¹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직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특수교역은 영구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에 의해 다시 일반교역으로 이동하게 된다.⁹²

칼빈은 루터 보다 특수교역을 강조하는데 그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적, 목회적 직분이 필요하며, 성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며 유지하는 방식이 폐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³ 이러한 강조는 평신도에 대한 목회자의 위계적 우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역과 일반교역의 기능적 차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루터와 칼빈의 주장 모두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만인제사장으로써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들이 모든 면에서 더욱 깨어 있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종교적 기득권 세력에 눌려 억압되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이 부름을 깨닫고 스스로 계몽되어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성도로 세워 지기를 가르친 것이다. 그들은 성직자의 권위와 성스러움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그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직업 또한 목회직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고 성스러운 직임을 일깨우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강조는 자연스럽게 직업소명설의 기초로 이어지게 된다.

만인제사장직이 담고 있는 이러한 함의로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직접적인 당위성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그

91 Ibid., 511.

92 Ibid., 512.

93 Jea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김종흠,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61-62.

소명이나 거룩성의 측면에서는 세상에서의 직업과 목회직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 하는 것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4.3 직업소명설

종교개혁을 통해 루터가 이룬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는 세속 직업에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과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거룩한 것은 더 이상 수도원이나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하찮아 보이는 신분이나 직업을 가진 자도 그 일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주장은 당시의 사회를 유지하던 교회지상주의, 성직중심주의, 권위주의, 계급주의를 흔드는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그야말로 발칙한 주장이었음에 분명하다.

루터 이전에는 직업을 의미하는 독일어는 Beruf로 이는 세속적인 직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루터는 직업의 의미를 성서적 근거에서 차용하여 클레시스(klesis)라는 단어로 사용하였고 이는 바울서신에서 사도나 사제의 “부름” 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 그는 이 단어가 사용된 다양한 성경본문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속적 직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뜻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신약성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세상적 직업이나 장사에 종사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암시하는 곳이 전혀 없다” 고 주장한다.⁹⁴ 루터는 만인제사장론과 같은 논리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94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편저,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131.

주어졌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분(Stand)과 직책(Amt)의 개념을 엄연히 구분한다.

모든 성도는 신분을 갖는다. 이것은 사회적 계층을 의미하는 신분은 아니다. 루터에 따르면 신분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여한 “활동의 자리”(Ort)이며 이 자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리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직업을 허락해 주셨다.⁹⁵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신분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모두에게 평등하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기에 성직자의 신분은 더 높이고 농부의 신분은 낮추었을 리가 없다. 이 두 신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것이다. 그러나 직책(Amt)에 있어서는 차이를 갖는다. 즉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르다는 것이다.

교황, 주교, 사제, 그리고 수도사 등들만이 영적 신분을 가졌고, 왕과 영주 농부와 기능공들은 세속적인 신분을 지녔다고 하는 생각은 순 날조된 생각이다. ... 모든 기독교인들은 진정으로 영적 신분을 확보하였다. 이들은 상호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직분이 다른 뿐이다.⁹⁶

1520년, 수도원주의를 비판하는 글에서 루터는 세속적 직업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일반적 소명과 더 높은 소명을 구분함으로써 직책을 신분으로 교묘히 둔갑시켜 영적, 신분적 계층을 형성한 당시 기독교 세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루터는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제와 성직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95 Luther,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222-223.

96 Ibid., 171.

직업이지만 농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기능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이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의 도구인 것이다.⁹⁷

루터는 많은 설교와 저서를 통해 이러한 직업소명설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하찮은 직업일지라도 모든 성도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중요한 신학적인 토대를 세운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겸직목회, 선교적 교회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소명을 일상으로 확장해 나가는 개념에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된다.

루터시대의 소위 타락한 중세교회의 모습과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유사한 점이 많다. 16세기에 정점을 이루었던 교회지상주의, 성직주의, 교회와 세상을 성과 속으로 나누는 이원론의 문제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복음의 능력은 개인의 구원에도 있지만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복음의 능력이 제한되는 주된 이유가 된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마법과 같이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복음에 감화된 사람이 자신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써 그 받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의 영향력으로 사회가 바뀌는 것이다. 즉 복음의 능력은 예배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루터의 직업소명론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97 Ibid., 225.

모든 일상을 선교의 자리로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선교적 파송의 당위와 명령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4.4 소명과 직업

성공회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에 따르면 중세인들은 전반적으로 소위 ‘세속’에서 행하는 노동을 품위가 떨어지는 저열한 행위로 여겼다. ‘성직’이 아닌 일은 ‘소명(vocation)’조차 받지 못한 일로 치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어 단어의 vocation의 기원이 된 라틴어 vocatio는 중세 시대에 오직 수도사가 되는 사제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였기 때문이다.⁹⁸ 그러나 루터는 베드로전서 2:9절을 근거로 “만인제사장론”을 주창하며 모든 신자는 제사장(사제)으로 소명, 즉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인 된 그 자체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소명을 받은 이들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명 받은 모든 신자들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상의 삶이 거룩한 성직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성직자가 교회에서 행하는 일과 평신도들이 일상해서 행하는 일은 어떠한 차이도 없다.

루터의 이러한 주장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즉, 성도들의 영적권위를 신장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성도들이 성직자들의 비해서 하등한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소명을 받은 자들임을 일깨워준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적용이, 특별히 일하는 목회자들에게는, 반대로 적용되어야 할 듯 싶다. 풀러의 총장을 지낸 마크 레버튼은 “제일소명”(IVP)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⁹⁸ Alister E. McGrath, 『신학이란 무엇인가』 김기철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4), 541.

간단히 말해 소명이란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두 계명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지만 특히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명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공동체가 하는 모든 활동에도 적용된다.⁹⁹

다시 말해 목회자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이유로 소위 ‘세상 일’을 하게된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소명을 버린 것이 아니고, 소명에서 도망친 것도 아니라 소명을 이뤄가는 거룩한 도구요, 성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성도들이 그들의 직업과 노동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이뤄가듯이 목회자가 행하는 성직자로서의 사역 뿐 아니라 그들이 갖는 다른 직업들 또한 그 자체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이뤄가는 훌륭한 도구인 것이다. 그것은 그 직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행하는 그 사람,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마크 레버튼이 말한 제일소명의 관점에서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 이기적이고 거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답고 거룩한 책임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고 말한다. 가장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돌보는 일은 이차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증거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99 Mark Labberton, 『제일소명』 하보영 역 (서울: IVP, 2014), 26-27.

일은 전임 사역자보다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유리한 환경에 있다. 그들이 세상과 사람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그 환경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발버둥치며 살아갈 때 그들이 만나고, 깨지고, 성취하며 얻게 되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전략은 그 경험을 하지 않은 목회자들 보다 더 깊고 진지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시대와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목회자가 이중직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한국 교회는 구조적인 변화나 실제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여전히 보수적으로, 심지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소명은 거룩하고 고귀한 것이고 직업은 세상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생각으로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어쩌면 이러한 인식들은 목회자를 “거룩”이라는 틀 속에 가두고 반대로 평신도들은 “세상”이라는 틀 속에 가두어 그곳에서 나오면 큰일 이라도 나는 것처럼 양분된 지형을 만들었다.

선교적 교회와 목회자의 이중직 이슈는 바로 이 굳어진 인식을 바꾸려고 한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목회자를 “거룩”이라는 틀 속에서 꺼내려는 시도이다. 평신도를 “세상”이라는 틀 속에서 구하려는 시도이다. 소명은 곧 세상에 있는 것이고, 세상으로 나가 구별됨을 이루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라 여기는 것이 더 옳은 접근이다.

지금까지 18권의 책과 5권의 성경공부 자료를 저술했으며 쉬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의, 세미나, 리트릿 등 역동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실천신학자 폴 스티븐스(Paul Stevens)는 ‘성직자-평신도’라는 수직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

성도들은 자신의 고유한 사역을 갖고 있으며 이것을 위해 구비돼야 한다. 목회자는 자신의 사역을 성도들에게 복사 시켜서는 안되며 성도들 고유의 사역을 계발시켜 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신도층이라는 구별된 한 계층이 교회 안에서 사라질 것이다.¹⁰⁰

그가 주장하는 소명의 신학은 단순하고 뚜렷하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주일 하루 두 시간 남짓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 생활’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시간은 신앙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소위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일주일에 두 시간만 관계 맺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보고 흡족해 하실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365일 24시간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으로 소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소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기록의 제한을 허물었다는 것이다. 구약의 제사장들만, 수도원의 사제나 교회의 목회자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만 부르심,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성도들이 그 담력을 힘입어 성소로 나올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한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구원의 의미를 넘어 모든 성도들의 평범한 일상을 기록하고 눈부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셨음을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종교개혁과정에서 모든 신자들이

100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김성오 역 (서울: IVP, 1992), 46.

부름 받았다는 루터의 소명론은 선교를 대상, 장소, 과정, 파송 주체 등을
이유삼아 특정한 부류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부여하신 진정한 선교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

선교적 교회가 추구하는 것, 즉 모이는 교회가 아닌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과 맞닿아 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주일의 98%의
시간을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보내고 있다.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써 어떻게 일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훨씬 더 큰 강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5. 나가는 말

폴 스티븐스는 “현대인을 위한 생활 영성”이라는 그의 책에서 영성이란 근본에 관한 문제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생활의 현장에서 기록해지는 것”임을 역설한다.¹⁰¹ 그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고 경험하는 7가지 주제와 연관하여 제시한다. 노동, 가정생활, 이성관계, 형제관계, 홀로 있음, 이웃관계, 안식일의 주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다. 영성은 일주일에 두 시간 교회에서 보내는 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드릴 수 있는가에 드러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론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차적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증인, 즉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한다. 부름 받은 성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냄 받은 성도로 변모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 한국교회를 이끌어 왔던 교회성장이론, 건강한 교회론, 대형화 추구, 개교회 중심주의, 목회자 중심 리더십,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등 이러한 인식으로는 변화하는 시대를 교회가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1780년 이후 증기기관의 발명을 기점으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4번의 산업혁명이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동안 약 100년의 주기로

101 Paul Stevens, 『현대인을 위한 생활 영성』 박영민 역 (서울: IVP, 1996), 24.

산업혁명이 발생한 것에 비해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 대비 50여 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앞으로 그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추세이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로봇,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들을 엄청나게 앞당겼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힘과 이데올로기에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는 능력이 결코 아니다. 그 능력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품으며, 세상을 이끌어 가는 크고 역동적인 능력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를 어떻게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필자는 선교적 교회에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그러나 모두가 그 소명에 따라 사는 것은 아니다. 이 소명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통치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루터의 말대로 그 직업이 무엇이든, 그 삶의 모양이 어떻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기에 그 직업은 하나님 앞에 ‘성직’이 되는 것이다. 선교적 소명과 직업적 소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교적 소명이 중요한 이유는 놀라운 확장성이 있기 때문이다. 1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했을 때 100명의 성도가 하나의 교회를 이뤄, 한 마음, 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은 때로 필요하고 적절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된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소명 받은 왕 같은 제사장임을 깨닫고 각자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면 100개의 전혀 다른 영역에서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다름 없다. 그것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닌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목회자는 기능적으로는 신학과 목회의 영역에서 조금 더 알고 경험한 전문가이지 사회의 모든 분야를 알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 또한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나 활동들을 보면 다양해 보이지만 사실 하던 것의 반복일 때가 많다.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어 일상을 선교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이기만 강조하는 교회, 개교회 중심 주의, 목회자 리더십 중심의 교회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로 나아가기는 커녕 오히려 세상과 더 높은 담을 쌓고, 교회 안에 모여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외칠 뿐이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의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삶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뉴비긴의 선교적 삶은 한 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령님과 함께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었다. 그 낯선 곳은 자본주의가 낳은 맘몬의 도전이 있고, 각종 이데올로기의 위협이 있으며, 세속적인 문화와 굳어버린 교단의 벽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그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는 남침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수 많은 갈림길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대로 선교적인 삶의 길을 택하면 되는 것이다. 성도와 교회의 부름은 안전한 공간, 교회라는 성스러운 울타리, 거룩이라는 영성의 담 안에서 즐기는 우물 안 잔치가 결코 아니다. 그 부름은 세상에 있다. 일상에 있다. 학교에 있다. 직장에 있다. 가정에 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소명을 이루는 장인 것이다. 선교적 마인드를 갖추려면 우리의 자아를 낮추어야 한다. 권력과 명예와 안정과 성공을 버려야 한다. 그때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보냄 받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교회는 언제나 사회와 영향을 주고 받는다. 사회의 변화는 곧 교회의 변화를 이야기 한다. 사회는 변하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둘 모두의 잘못이 아닌 일방적인 교회의 잘못이다. 사회를 담아내는 것이 교회의 숙명적인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려움을 만났다. 계속해서 교회 수, 목회자 수, 성도 수, 재정 등등 보이는 대부분의 지표는 하양곡선을 그리는 추세이다. 코로나 사태는 이를 더욱 가속화 시켰다. 미자립교회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개척교회는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지역교계의 관심의 대상이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에는 결단하고 순종하였는데 그 길은 경제적인 부분이 전혀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은 목회자의 소명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중직을 통해서라도 목회자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많은 목회자들이 이 갈림길 앞에 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은 놀랍게도 선교적 교회론이 주장하는 내용과 비슷한 방향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목회 활동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목회자의 궁극적인 부름은 교회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지만 교회가 그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지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하는 목회자들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마인드가 없으면 애초부터 목회자가 일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이들은 교구를 관리하는 교회에 속한 목회자에서, 세상이라는 타문화권을 섬기는 일터 선교사가 된 것이다. 뉴비긴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는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기 원하는 사람들의 전람회”¹⁰²로서 존재한다. 선교적 삶은 교회 안과 밖, 주일과 평일, 목회자와 평신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교인 모두가 자신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성장기를 지나 후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점점 교회는 위축되고 결국 이 사회에서 사장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성령님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 이전과 다른 한국적 신앙을 유의미하게, 어쩌면 훨씬 강력하고 건강하게 이끌어 가시리라 믿는다. 바로 여기에 선교적 교회론과 일하는 목회자들의 역할이 있다. 그들은 누구보다 이 질문을 물으며 그 답을 찾고 발버둥치며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익숙한 것들이 낯선 것으로 바뀌는 이 시대에 일하는 목회자들의 삶과 신학, 그들의 사역은 한국교회의 안정을 낫설게 바꿈으로 어두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의 대안을 꽃 피우게 만들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성도들은 깨어 세상으로 나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들을 보내기만 하고 응원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일하는 목회자들은 그들과 현장에서 함께 뛰고 응원하며 그 길을 함께 걷는 영적 동반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소명 감당하기 위해 날카로운 경계위를 아슬아슬 걸으며 누군가의 자녀로, 배우자로, 부모로, 사장님으로, 직장동료로, 무엇보다 존경받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모든 일하는 목회자들에게 그들을 통해 한국교회에

102 Newbigin, 『교회란 무엇인가?』, 101-102.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고 있음을, 그러니 지치지 말자는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참고문헌

권진영. “챗GPT MAU 1억 달성…인스타그램보다 15배 빠른 성장”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203/117724098/1>. [2023. 1. 10. 최종접속].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 교회사속에 나타난 선교전략과 사례연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목회데이터 연구소. “Numbers 제 111호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111_210910_Full_Report.pdf. [2023. 1. 10. 최종접속].

박노진. "성장이 멈춰버린 한국교회 진단" . http://www.ikidok.org/ca_theology/detail.php?aid=1585569759&PHPSESSID=823b917366f8f9adc32f1f68ad16fdbbc. [2023. 1. 10. 최종접속].

손봉호.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 「월드뷰 Worldview」. 11월호, 2018.

이박행, 양현표 편저. 『겸직목회』. 서울: 솔로몬, 2022

이지희. “한국교회 미래 희망 위해 젊은 세대 전도에 올인해야” . <https://missionnews.co.kr/news/582067>. [2023. 1. 8. 최종접속].

이현우. "목회자 46% 月 사례비 150만원도 못 받는다" .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3882305>. [2023. 1. 8. 최종접속].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편저.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정숙희. “챗GPT, AI가 두려운 이유” . <http://sf.koreatimes.com/article/20230228/1455207>. [2023. 1. 10. 최종접속].

최승현. "[합동26] 교회 42%가 예산 3500만 원 미만 '미자립' ” .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07>. [2023. 1. 9. 최종접속].

한국선교신학회 편저.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서울: 한국선교신학회, 2020.

Arnold, Clinton E / 김귀탁 옮김. 『강해로 푸는 고린도전서』. 서울: 디모데, 2019.

Banks, Robert/ 장동수 역. 『마을의 공동체 사상』. 서울: IVP, 2007.

- Bavinck, Herman. 원광연 옮김. 『개혁교의학개요』. 파주: Ch북스, 2017.
- Bicker, Dennis W. *The Work of the Bivocational Minister*. Vally Forge, PA: Judson Press, 2007.
- Bonheoffer, Dietrich/ 유석성, 이신건 역. 『성도의 교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Calvin, Jean/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역. 『기독교 강요 (하)』.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Danker, William/ 신대현 역. 『역사속에서 본 비즈니스와 선교』. 경기: 도서출판 창조, 2007.
- Gilder, Ray. *Uniquely Bivocational: Understanding the Life of a Pastor Who Has a Second Job*. Forest, VA: Salt Light, 2013.
- Goheen, Michael W/ 이종인 역. 『교회의 소명』. 서울: IVP, 2021.
- Labberton, Mark/ 하보영 역. 『제일소명』. 서울: IVP, 2014.
- Luther, Martin/ 지원용 옮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서울: 컨콜디아사, 1993.
- MacAthur, John/ 정진환역. 『자비량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서울: Joy, 1991.
- McGrath, Alister E/ 김기철 역. 『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복있는 사람, 2014.
- Newbigin, Lesslie/ 홍병룡 역. 『아직 끝나지 않은 길』. 서울: 복있는 사람, 2011.
- Newbigin, Lesslie/ 홍병룡 역.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IVP: 2002.
- Newbigin, Lesslie/ 홍병룡 역.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서울: IVP, 2007.
- Newbigin, Lesslie/ 김기현 역.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 서울: SFC출판부, 2008.
- Newbigin, Lesslie/ 최성일 역. 『선교신학개요』.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 Newbigin, Lesslie/ 홍병룡 역. 『오픈 시크릿』. 서울: 복있는사람, 2012.
- Newbigin, Lesslie/ 홍병룡 역. 『죄와 구원』. 서울: 복있는사람, 2013.

Newbigin, Lesslie/ 홍병룡 역.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서울: IVP, 2005.

Pierson, Paul E/ 임윤택 옮김. 『기독교선교운동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Snyder, Howard A/ 박민희 역.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리고 세상』. 의정부: 드림북, 2007.

Stetzer, Ed. “*Breaking the Missional Code: Your Church Can Become a Missionary in Your Community*.” Nashville: B&H Academic, 2006.

Stevens, Paul/ 김성오 역.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서울: IVP, 1992.

Stevens, Paul/ 박영민 역. 『현대인을 위한 생활 영성』. 서울: IVP, 1996.

Wainwright, Geoffrey. *Lesslie Newbigin: A Theological Lif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st edition, 2000.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Daewoung Jo

Place and Date of Birth: Incheon, South Korea, September 22, 1984

Parent`s Names: Jaesu Jo / Seyoon Oh

EDUCATIONAL INSTITUTIONS

	School (Name and Address)	Degree	Date
Secondary:	Incheon Nam High School 168, Gyeongin-ro, Namdong-gu, Incheon, 21565 South Korea	Diploma	Feb 09, 2003
Collegiate :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190 Changgok-ro, Wonmi-gu, Bucheon City Gyeonggi-do, South Korea (14500)	B. Th	Feb 17, 2009
Graduate:	Drew Theological School 36 Madison Ave Madison, NJ 07940 USA	M. Div	May 17, 2014
Graduate: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64 Mercer Street, Princeton, NJ 08540 USA	Th. M	May 19, 2018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Daewoung Jo

March 15. 2023